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190호 2010년 2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WCU 뇌인지 과학과 교수진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분야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랜돌프 블레이크 교수(반더빌트 대학), 이상훈 교수(심리학과), 그레이엄 콜린그리지 교수(브리스틀 대학), 강봉균 교수(생명과학부), 김상정 교수(의과대학)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 가동

노벨상 등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WCU 해외석학 유치,신규학과 개설

모교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World Class Universit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해외 석학을 유치(59명)했고, 7개의 신규 학과를 개설해 2학기제 운영하고 있다.

그 중 신생학문인 뇌과학 분야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연구하는 교수 12명이 모여 새로운 융합학문을 시도하고 있는 뇌인지과학과를 예로 든다.

뇌인지과학과는 소속 교수들이 돌아가며 강의하고 토론하는 WCU 강연시리즈를 매주 열고 있다. 외국인 초빙 교수들도 본국과 서울대를 오가는 일정 속에서 빠짐없이 강연에 참석한다.

강연이 끝날 때마다 교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런 주제로 협동해서 연구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건넨다. 이런 제안은 곧 토론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가능성을 탐색한 뒤 프로젝트로 계획된다. 때론 아이디어만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학문간 융합을 지향하는 공동연구에 귀한 영감이 된다.

뇌과학 분야의 선구자이자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브리스틀 대학의 그레이엄 콜린그리지 교수는 동료인 이인아 교수의 권를 이용한 공간인지능력 실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새로운 아이

디어가 떠올라 가슴이 뛰었다고 한다.

"'과학은 국경을 넘어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어요. MIT 등에서도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울대의 WCU는 진정한 다학제간 협력이 가능한 아주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뇌인지과학과 교수들 모두 인간 뇌의 비밀을 밝혀내려는 갈

은 목적의 연구로 명성을 얻었지만, 뇌를 해부하는 의학적 접근에서부터 인지능력에 대한 심리학적 실험기법까지 연구방식은 서로 다르다.

"연구에 매진하다 보면 전문적이 될수록 자기 것에 함몰되기 쉬워요. 같은 섬

을 찾아가고 있는데 다른 배에서 알아낸 정보는 들여다 볼 생각도 안 하고 내 길만 가는 거죠."

이인아 교수는 융합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뇌인지과학과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지하층 연구실을 자청했다. 한 층에 한 팀이 모여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김예진 동문

'한국전쟁유산'재단 설립

지난 해 오바마 대통령이 6·25 휴전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일'로 지정하고, 성조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토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김예진(27 사진)동문.



김 동문은 최근 6·25 한국전쟁의 미와 교훈을 적극 알리기 위한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참전용사들이 사는 데

사스주에 등록했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회(KWVA) 회원 등 10여 명이 이사로 참가한 이 재단의 이름은 '한국전쟁 유산(Legacy of Korea War)'으로 6·25로 인해 형성된 한미동맹을 한층 공고히 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김 동문은 한국전 참전용사회가 젊은 세대를 가르치는 'Tell America' 프로그램이 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재단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참전용사들이 60년 전 경험회고에만 신경 쓰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지루해 하고 관심을 못 갖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용사들을 미국의 각 학교·단체와 연결시키고, 이들의 강연을 도울 30분짜리 표준교재도 만들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한인단체와 참전용사 조직간 자매결연을 돕는 사업도 구상 중이다.

김 동문은 2008년 워싱턴 DC에서 '리멤버 7·27'을 만들어 1년 넘게 활동했다. 미 하원의원 435명의 사무실을 모두 방문하며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한 끝에 휴전기념일에 미 전역에 성조기가 게양되는 '한국전 참전용사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6·25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겔(Rangel)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은 "김예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성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동문은 현재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공식손녀(Official Adopted Granddaughter)'가 돼 있다. <조선일보 인용>

선택이었다. 그만큼 해외 학자들의 참여 열기가 대단하다. 내년 2학기부터 참여하기로 예정돼 있는 랜돌프 블레이크 교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해 미국에서 잠시 방문해 미래의 동료들과 제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학생들도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에만 2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해 신경과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한 전설의 교수를 금방 알아보았다.

콜린그리지 교수는 세계 석학들이 자발적으로 서울대를 찾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서울대에서 한 학기 동안 많은 걸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나도 얻은 것이 많습니다."

그는 낮에는 서울대에서 일하고, 밤이면 온라인 메신저로 브리스틀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편집장으로 있는 학술지 논문도 심사하는 이중삼중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해는 한 주 걸려 런던·파리·서울을 이틀 단위로 오가며 미팅에 참석해야 했다. 유럽의 동료들을 만날 때면 서울대에서 벌어지는 전례 없는 공동연구에 대해 들려준다.

"서울대는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인아 교수 역시 "서울대의 WCU는 과거 돈을 주고 해외 석학을 모셔오는 단계는 이미 넘어서었다"고 단언하고 있다.

←뇌과학 분야 선구자인 영국 브리스틀대 콜린그리지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중이다

PRSRT STD
NON-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1 1068

사랑의 달 특집

<사랑·결혼·가족>

결혼적령기 2세 10만명 3면
결혼정보 서비스 이용과 양면 4면

미주동창회 소식

고김재민동문과 약대 뉴욕동창회 차기 모교 신약개발센터에 기부금 모교 총장 5월에 선거 13인초빙위구성 4월중순까지 총장 후보자 3~4명 추천

지난해 9월 작고한 김재민(약대 57년 입학) 동문의 유족들이 모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지난 2월 6일 뉴욕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 약대 뉴욕 동문회(회장 김문경)의 신년 하례회에 참석한 김재민 동문의 미망인 김남균 여사는 고인의 이름으로 고국의 약학대학에 1만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을 방문한 서영거 약대학장이 이 기부금을 직접 받았다.

1961년 약학대학을 졸업한 김재민 동문은 1973년 도미할 때까지 모교의 생약학 교실에서 후배를

고인의 모교에 대한 사랑의 뜻을 실천키 위해, 신약개발 센터 건립에 보탬이 되도록 금번 기부금을 전달기로 한 것이다.



고 김재민 동문



기부금을 전달한 고 김재민 동문의 부인 김남균 여사와 서영거 모교 약대학장(왼쪽), 약대 뉴욕동창회 김문경 회장

양성했다. 뉴욕주 약사 면허를 받은 김 동문은 2004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뉴욕 Staten Island에 있는 South Beach Psychiatric Center에서 약사로 근무했다.

김 동문은 재학 중 특출한 약용식물 채집과 자연을 대상으로 한 사진촬영의 취미를 즐겼고, 모교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다. 은퇴 후에는 선교활동과 식물 가꾸기, 사진촬영 등으로 만년을 엔조이하다가, 지난 9월17에 작고했다. 부인과 1남 1녀의 유가족들이

이 기부금을 직접 받기 위해 뉴욕에 온 서영거(약대 71년 입학) 학장은 “모교에서 20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신약개발센터의 건립기금으로 김 동문의 기부금이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 하례회에서는 그 외에 또한 약대 뉴욕 동문회에서도 2천달러, 모교발전 기금위원인 윤정옥 동문(약대 50년 입학)이 2천달러, 약대 뉴욕 동문 회장인 김문경 동문(약대 61년 입학)이 3천 달러를 신약개발센터 건립 기금으로 회사했다.

<김장수 논설위원>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주필 : 이윤모(농)

논설위원: 김일훈(치) 김창수(NY)

김재환(WA) 남재홍(NY) 백순(OC)

오강남(BC) 오기창(치) 육길원(치)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

(LA) 임승재(SF) 장석정(치) 정홍택

(PA) 한창섭(NY)

편집위원: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호(공)

편집장: 이기준

모교는 금년 5월에 서울대 차기 총장 선거를 실시한다.

이 선거를 앞두고 서울대 총장 후보 초빙위원회(초빙위)를 지난 11월 구성했으며 초빙위는 4월 중순까지 3~4명의 총장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초빙위는 학내 인사 7명과 학외 인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이호인 교수(화학생물 공학부 응용화학과 66년 입학)가 선정됐다.

초빙위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내 인사= 이인호 교수, 물리 천문학부 이준규 교수(물리 67년 입학), 디자인 학부 권영길 교수(응용미술 69년 입학), 인문대 변창구 학장(영문 70년 입학), 농생명공학부 이인원 교수(농생명 70년 입학), 신경의과학 교실 왕규장 교수(의학 73년 입학), 소비자 아동학부 여정성 교수(가정 관리 83년 졸).

▶학외 인사=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기계공학과 48년 입학), 국제 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조완규 상임고문(생물 48년 입학), 대한민국 학술원 김상주 회장(금속공학 49년 입학), 경원대 이길녀 총장(의학 51년 입학), 한국 과학기술원 이인호 석좌교수(사학 55년 입학), 모교 경영학과 박수일 명예 교수(상학 59년 입학).

서울대 총동창회 3월 19일 정기총회

2010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임광수) 정기 총회가 3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서울 롯데 호텔(소공동)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2회 서울대 총동창회 관악 대상 시상식에 이어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사업계획 보고, 임원 개선훈을 한다.

이에 앞서 동창회 154차 관악

이번 2월호 회보는 ‘밸런타인 데이’가 들어 있는 사랑의 달이므로 사랑, 가족, 그리고 인류애에 관한 글들을 모아 편집합니다.

밸런타인 데이의 유래 로마 순교자 사랑의 편지 전설에서

보통 ‘밸런타인 데이’라고 하는 2월 14일 성자 밸런타인의 날 (Saint Valentine's Day)은 친근한 동반자들 사이에 애정을 축하하는 연례 축일이 되어 있다. 이 날은 초기 기독교의 순교자 ‘밸런타인’의 이름을 따라 교황 Gleasius I세 (AD 496)가 제정한 축일이다. 초기 기독교회에 밸런타인이라는 순교자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더 있었다. 로마의 밸런타인은 269년경 순교했고 그 외에도 2명의 성자 밸런타인이 있었다.

로마의 기독교 사제 밸런타인은 클라우디우스 2세 황제에게 고문을 받고 처형당했다. 어떤 전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젊은 남자들은 가족에 대한 부담에 매이지 않도록 독신으로 지내라는 포고령을 내렸다. 사제인 로마의 밸런타인은 이에 불복하여 비밀리에 젊은이들의 결혼 예식을 집행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들은 로마 황제는 밸런타인을 체포하여 수감하고 그에게 기독교를 포기하라고 했으나 밸런타인은 오히려 황제를 개종하라고 설득시키려다가 순교했다.

밸런타인은 처형 직전에 감옥 간수의 눈 먼 딸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했다는 전설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밸런타인은 처형되기 전날 밤, 자기가 친해져서 눈을 치료해 준 죄수의 딸에게 “당신의 밸런타인으로부터”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최초의 애정의 표현으로 유행하게 된 첫 ‘밸런타인 카드’가 됐다고 한다.

본래 교황이 밸런타인 축일을 처음 제정했을 때는 로맨틱한 요소가 없었다. 성 밸런타인의 날이 로맨스에 연계된 것은 14세기이며 3명의 밸런타인에 대한 구분도 이때 모호하게 됐다.

밸런타인 사제가 순교 전날 밤에 감옥에서 간수의 딸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냈다는 그 전설은 중세기에 궁중 연애가 왕성하던 때 확고하게 전통으로 되

었다. 이제는 밸런타인 데이에 꽃, 초콜릿, 카드 등을 보내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 경축의 날이 되어 있다.

밸런타인 선물을 보내는 유행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됐고 미국에서는 1847년 매서주 세츠 주의 Ester Howard라는 여인이 영국의 유행을 따라 집안에서 수공한 카드를 판매한 것이 시작이다. 19세기 이때만



해도 밸런타인 카드는 크리스마스 카드 다음으로 유행한 계절 인사 카드였지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은 아니었다. 인사 카드 업자 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억 개의 밸런타인 카드가 보내지고 있다.

‘밸런타인’이라는 단어는 밸런타인을 주교받는 경우 곧 사랑의 카드를 의미하며 “그는 나의 밸런타인”이라고 할 때 애인을 의미하게 됐다.

현대의 밸런타인 상징으로는 하트 모양의 윤곽, 비둘기, 날개 달린 큐피드 등이 애용된다.

한편 로마 교황청은 1969년 성자 축일 캘린더를 개정할 때 2월 14일의 밸런타인 데이를 성스러운 축제일에서 격하시켰다.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연락처는 전화 011-822 702-2233, Email: snua@paran.com

이번 호의 주요 내용

3. <특집> 결혼 적령기 2세 10만명
4. <특집> 결혼 정보 서비스 이용 양태
5. 오바마의 의료개혁 추종
6. 아프간 전쟁은 성공할까?

- 7~8. 명작 소설 속의 인간애
9. 만주로부터의 엑소더스
10. 동문 수필
11. 정신 경제학
12. 팝송 이야기 <5>
13. 고국의 동문동정 (수상·인사·부음)
14. 관악에 첨단 거주형 캠퍼스

- 15~18. 지역 동창회 소식
19.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 20~22. 동창회비 납부현황
- 23~29. 미주 동문 업소록
30. 동창회 조직과 명단
31. 광고,평의원 회의 소집 안내

특 집

사랑 · 결혼 · 가족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를 넘기거나 동족 혼인을 포기해도 타민족 배우자와 결혼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한인 차세대의 결혼 실태 지표들을 연방 통계청의 데이터(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2007)를 통해 미주 동창회보(2009년 3월호)에 게재한 바 있다. 그 자료에 이어 결혼 적령기 2세의 인구 규모와 한국어 사용 가정의 감소 추세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 현상을 분석해 소개한다.

이 윤 모 (농대 57입)

연방 통계 (American Community Survey, 2007, 시카고 한인사회 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미국내 한인 중 미혼자 (미성년 어린이 포함) 수는 남자 34만9천857명, 여자 33만235명으로 추산된다. 2세(미국 출생) 결혼 적령기 (20-39세) 인구는 12만5천908명인데 미혼 남성은 20대 3만6천120명, 30대 2만2천271명으로 모두 5만8천391명이다. 이에 비해 미혼 여성은 20대 3만3천861명, 30대 7천433명으로 모두 4만1천294명이 있어 1.4대 1로 미혼 남성이 많다.

결혼 적령기 인구 중 미혼자 비율은 20대에 남성 86.1%, 여성 83.5%로 거의 20대에는 결혼을 미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30대의 미혼 비율은 남성 43.2%, 여성 35.2%로 남성의 결혼 지연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하튼 이 통계는 한인들 사이에 “사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말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요는 어떤 사람을 찾으며 어떻게 만나느냐는 문제일 것이다.

도표 1. 재미 한인 결혼 통계 (2007년 ACS, Hansa Institute)

남성	결혼	사별	이혼	별거	미혼	합계
1세	145,268	2,182	10,741	1,637	41,342	201,170
1.5세	123,705	1,896	4,481	1,271	122,817	254,170
2세	22,778	354	2,468	702	185,698	212,000
소계	291,751	4,432	17,690	3,610	349,857	667,340
여성						
1세	190,462	29,026	30,087	3,588	44,669	297,832
1.5세	159,996	11,156	10,313	3,580	114,662	299,707
2세	23,611	956	4,799	503	170,904	200,773
소계	374,069	41,138	45,199	7,671	330,235	798,312

2세 여성 3분의 2 타민족과 결혼 남자 2세는 46% 타민족과 혼혼

2세의 혼혼 증가 추세

2000년과 2007년 데이터의 기혼 (부부 동거중인) 한인들의 배우자 선택을 남녀 세대별로 구분하여 (2세는 미국 출생자, 1.5세는 18세 이전에 미국 이주자) 그 배우자의 인종/민족과 세대를 비

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한인 1.5세 여성들의 혼혼(타민족 결혼) 비율은 2000년 53.3%에서 2007년에 57.3%로 약간 증가했다. 1.5세 남성들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큰 변동 없이 4분의 1 정도만 혼혼했다.
- 2세 한인 여성들의 타민족 혼혼율은 2000년 50.2%에서 2007년 62.9%로 증가했다. 2세 남성의 혼혼율은 2000년 27.1%에서 2007년 45.8%로 증가했다.

언어 사용능력과 혼혼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동족 혼인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 데이터에서 나타난다. 즉 성장기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 동족혼인을 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타민족과 혼혼하면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개연성이 적어진다.

2007년 가정 내 사용 언어를 보면 재미 한인 135만7천482명의 74.0%인 100만3천968명이 한국어 사용 가정에 속한다. 1.5세의 60.7%(225,117명)과 2세의 48.5%(151,385명)이 한국어 사용 가정

에 속하고 있다(도표 2 참조). 물론 부모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정에 속하는 차세대라 하더라도 한국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그리고 한국어 사용 부모가 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내도 자녀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

다수다. 여하튼 2세의 절반 이

하인 15만명 정도가 한국어 사용 가정에 속하고 있다는 통계는 재미 한인사회에서 장차 모국어를 보전하는데 비관적임을 암시한다.

▶ 1.5세 가정의 언어

한국계 1.5세 남성중 혼혼을 한 93.8%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반면 동족혼한 83.1%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 한국계 여성 1.5세 중 혼혼을 한

가정의 언어 선택은 여성의 영향력이 높은 편 한국어 사용 출산모 1.5세 32.8%, 2세 22.6%로 격감

90.6%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반면 동족혼한 86.8%가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

▶ 2세 가정의 언어

한국계 2세 남성중 혼혼가정에서 93.8%가 영어를 사용하지만 동족혼자중 41.2%가 가정에서 한국어, 57.0%가 영어를 사용한다. 한국계 2세 여성은 혼혼자중 95.2%가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지만 동족혼자중 45.7%가 한국어, 53.4%가 영어를 사용한다. 즉, 한인 1.5세들 간에 동족 결혼을 한 경우 10가정 중 8가정 이상이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2세 한인 간 동족 결혼의 경우는 10가정 중 4가정 정도가 한국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동족 간 결혼을 했느냐,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동족과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이 데이터에서 언어와 혼혼의 상관관계 지수를 보면 1.5세와 2세의 동족결혼이 한국어 사용 능력에 의존한다는 강한 지표가 보인다. 결혼이 가정의 사용 언어에 영향을 준다는 상관관계 지수보다는 언어 사용력이 배우자를 어느 세대(한국어 1세, 1.5세, 2세)에서 선택하느냐에 영향을 준다는 지표가 혼혼 경우보다 동족혼의 경우 더 강하다. 그리고 가정의 언어 사용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이 남성의 영향력보다 약간 높은 편이지만 근소한 차이 뿐이다.

출산과 언어 전수

또 한가지 의미 심장한 것은 여성의 출산력과 언어 전수의

관계다. 2007년 통계 당시 한인 기혼 여성 34만262명 중 2만 757명이 12개월 동안에 출산한 것으로 추산된다. 혼의 출산자나 쌍둥이 출산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한인 차세대의 기혼(부부동거) 여성중 1년간 1.5세 11.9%와 2세 13.5%가 출산했다. 한인 출산율은 전 미국의 출산율(기혼부부 동거 여성들의 7.7%가 1년중 출산함)을 능가하므로 그 면에서는 낙관적이다.

그러나 그 신생아들의 한국 혈통 동결성 보전이나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성장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 한인 출산모 1만1천833명 중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자는 1세 출산모의 83.1%지만 1.5세 출산모 중에는 32.8%, 그리고 2세 출산모의 경우 22.6%로 격감한다.

2세 출산모의 5분의 1이 약간 넘는 정도로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재미 한인 3세 이후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희소하게 될 것이다.

참고적으로 아시안계 중 미국 이민 역사가 한인들보다 한 세대 빠른 중국계와 일본계 후손들의 가정내 모국어 사용을 비교해 본다.

중국계는 2000년대에도 이민이 계속돼 2007년 현재 304만4천900명중 75.1%가 4 가지 중국어 가

교육수준과 혼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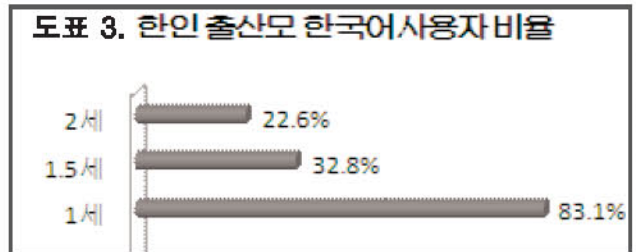
상식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으면 혼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것이다.

▶ 1.5세의 경우 학력은 동족결혼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드러내지 않는다. 1.5세 동족 혼인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남자 44.7%, 여자 48.3%로 혼혼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남자 28.0%, 여자 39.1%)보다 공통으로 높다. 반면 1.5세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에서는 혼혼자 비율이 남자 36.1%, 여자 20.2%로 남녀 동족결혼자 중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비(남자 26.5%, 여자 16.6%)보다 높다.

▶ 2세 동족 혼인자 중 학력이 높을수록 동족 결혼 현상이 나타난다. 동족 결혼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이 남자 34.2%, 여자 37.8%로 혼혼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남자 30.5, 여자 37.8%)과 대등하거나 약간 높다. 석사 학위나 전문 학위자 비율은 동족결혼의 경우 남자 44.8%, 여자 47.0%로 혼혼자 중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남자 20.3%, 여자 31.8%)보다 현저히 높다.

직업 지위와 결혼



운데 한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2세 이후(미국 태생) 중국계 인구 중에도 47%가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계는 새 이민이 거의 없어 재미 총인구가 80만5천95명에 불과하며 그중 40.8%만이 가정에서 일본어를 사용한다. 특히 주시할 것은 미국 태생 일본계의 14.4%만 가정에서 모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리 한인 후세대에 중국계 모델과 일본계 모델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한국으로부터 새 이민 유입과 관계 있을 것이다.

중국계와 일본계의 이민추세와 모국어 사용관계를 좀더 분석해 보면 한인 3세 이후 일본계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을 피할 수 있을지 알게 될 것이다.

직업상 지위와 결혼할 기회와 관계도 복잡한 것이므로 적은 지면에 그 관계를 상세히 논하지 않겠다. 단지 이 데이터에서 직업 분류 중 최상위 전문직 종사자들과 정부나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혼혼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을 뒷바침하는 추세다.

- 자영업자들을 대조하면 1.5세 동족결혼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남자 24.6%, 여자 15.1%로 혼혼자들의 경우(남자 15.4%, 여자 13.4%)보다 공통으로 높다는 것이 나타난다.

- 2세의 경우 남자 동족 결혼자의 자영업자의 비율은 19.5%로 혼혼 남자 중의 자영업자 비율(4.9%)보다 현저히 높다. 여성의 경우는 반대로 혼혼자가 운데 자영업자의 비율이 9.9%로 동족결혼 여성중의 자영업자 비율(5.3%)보다 높다.

[8페이지 에게속]

도표 2. 한국어/영어사용 가정의 세대별 인구 (2007년 ACS, Hansa Institute)

	한국어 사용 가정		영어 사용 가정		기타 언어 사용 가정		총인구 합계	
세대	사용자 수	%	사용자 수	%	사용자 수	%	가정 인구	%
1세	627,466	93.0	36,714	5.4	10,574	1.6	674,754	100.0
1.5세	225,117	60.7	140,283	37.8	5,284	1.4	70,684	100.0
2세	151,385	48.5	156,948	50.3	3,711	1.2	12,044	100.0
합계	1,003,968	74.0	333,945	24.6	19,569	1.4	1,357,482	100.0

특 집

사랑 · 결혼 · 가족

사랑<조건>외모 차세대의 배우자 선택 풍조

[편집실 기획 기사]

미주 한인중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환희도, 걱정거리도 자녀의 결혼이다. 서울대 동문들 중 아직 자녀 결혼을 못 마친 분들은 자녀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Any good news?” 라고 묻기에도 지쳐 버렸다.

그래도 행여 “이번 밸렌타이데이에는...” 라고 부르며 자녀에게서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기대를 걸기도 한다. 그런 부모들끼리 아들-딸을 매칭하려 해도 e메일을 주고 받거나 한번 만나고 나서는 당사자들 간에 진전이 없어 부모의 친구 관계까지 시큰둥해지거나 침묵하는 사이가 된다. 그리고 “어디엔가 인연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가느다란 희망을 걸고 세월 가는 것만 지켜보게 된다.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라지만 실은 학업에 전념하다가 나이가 들고 사랑에 빠지기에는 늦었으니 “조건이 맞으면” 이라고 물러선다. “사랑을 찾지 못해서” 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없어서”는 아니다. 한인 동족간 결혼을 고집하더라도 미주 2세 중 미혼 인구가 무시 못할 숫자기 때문이다.

연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페이지 관계 기사 및 자료 참조) 결혼 적령기의 미주 한인 2세중 미혼 인구가 약 10만명(남 58만3천981명, 여 4만1천294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통계를 분석해보면 한인은 미국에서 결혼 적령기 미혼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에트닉 그룹이다. 학업중인 인구를 분석하면 교육을 중시하는 한인 후세들은 20대에 학업 때문에 실증판구(남 86.1%, 여 83.5%)가 미혼이다. 30~39세에서 남자 43.2%, 여자 35.2%가 미혼 상태다. 중매를 해도 남자가 결혼을 주저하거나 결혼할 의욕이 없이 지연되기 때문에 성혼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통계 지표로도 보인다.

그래도 자녀 결혼을 걱정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해보려는 부모들은 결혼중개 에이전트를 찾기도 한다. 결혼 중개업자들의 신용이나 성과에 대해 반신반의 하면서도 지프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개업자에게 선약금을 전네고 소식을 기다리는 부모들이 있다.

이런 경우 궁급한 결혼 중개

에이전시들의 방식과 절차에 관해, 그리고 그 중개업자들을 통해 듣는 차세대의 결혼 양태를 소개해 본다.

북가주 동문의 [두리하나]

우선 미주에서 서울대 동문이 운영하는 결혼 중개 업소로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정지선 동문(상대 58일)이 운영하는 ‘두리 하나 결혼정보’ 센터가 있다. 정 동문이 5년 전에 업체를 설립했는데 현재 정회원 500여명에 준회원 200여명 등 총 7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회원 중 남녀의 비율은 6대 4 정도로 여성이 많으며 여성의 학벌은 모두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생들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고교 졸업생 출신은 10여명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대졸 출신들이다.

회원의 직업 분포도는 90% 이상이 미국인 직장인이며 전문직은 남녀 각각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두리 하나’는 회원 가입비로 300달러를 받고 혼인이 성사될 경우 1천700달러를 성사비용으로 받는다. 단 2~3월에 한해서 서울대 동문 자녀의 경우 가입비 무료로 성사비용을 1천 500달러로 할인해주고 있다.

한국의 동문 우대 업소

한국에서는 1991년 처음으로 설립된 ‘선우’의 커플넷(www.couple.net)을 시작으로 1995년에 설립한 ‘듀오(www.duo.co.kr)’가 현재 한국내 최대 결혼정보업체로 자리잡고 있다. Duo의 대표인 김혜정 동문(독어독문)은 뉴저지 주립대에서 MBA를 취득한 뒤 2001년부터 Duo를 맡고 있다.

한국에는 그 외에도 ‘웨디안(www.wedian.co.kr)’, ‘다임클럽’ 등 결혼정보업체가 부지기수로 있다.

이같은 결혼 정보업체에 의한 결혼 성사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결혼정보 최대 업체로 알려져 있는 Duo의 경우 등록 회원 2만7천여명에 혼인 성사 건수는 2만여건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선우의 ‘커플넷’은 결혼 후보자가 온라인으로 상대 후보를 찾아내는 서비스가 조직화돼 있다. 한,영,중문 3개 언어로 된 웹 사이트에 들어가면

“백마를 탄 기사를 기다립니다”라는 여성의 사진과 메시지, “Stylish cosmopolitan New Yorker is searching for love”라는 남자 등 여러 사람의 사진과 캐치프레이즈가 뜬다.

‘선우’ 웹 사이트의 후보 리스트에는 캘리포니아 38세 대학 교수, 델버의 28세 변호

파악하는 회원 정보와 후보자의 요구 사항의 복잡성에 따라 회비 등급이 다르다.

일단 가입된 회원에 대해 에이전시가 인터뷰를 해서 신상과 요구 조건을 확인한 후 데이터에서 적절한 후보를 찾아 매칭을 하며 미국에서는 주로 e메일을 통해 쌍방이 접촉하도록 소개한다. e메일로 시작해

이 같은 현상은 미주 동포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인품, 종교관과 가문 등 일반적인 환경조건은 기본일 경우다. ‘두리하나’ 결혼정보 센터의 정지선 동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본다.

여성은 상대 남자가 “아무리 전문직종으로 연봉 10만 달러 이상씩 벌면 될하나? 키가 작으면 아예 보지도 않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전문직종의 어떤 여성은 같은 조건이라도 남성의 신장 ‘175cm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학벌에 관해서는 법률계종 직종인 경우 현재 몸담고 있는로 펴의 위상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비록 일류 학벌은 아니더라도 일류로 펴에서 일하고 있으면 일류 2~3류로 펴에서 일하는 학벌 출신로 족보다 점수를 높게 쳐준다는 것이다.

반대로 남성측이 선호하는 신부감의 조건은 뭘까?

과거에는 여성의 ‘성격과 인성’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요즘의 미주 동포사회에서도 ‘나이’와 ‘외모’를 앞세운다. 두리하나의 정지선 동문은 여성의 나이가 30 이상이라면 남성측에서 “많다”는 인식이 배어있고, 35세 이상이라면 안 만나려고 해서 애로가 많다고 실토한다. 여성의 35세 이후 출산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남자들의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35세 이상이라도 의학적으로 출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아무리 해도 꺼린다는 것이다.

남성 역시 상대 여성에게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바로 외모다. 특히 전문 직종 남성의 경우 여성의 신장은 최소 163cm 이상은 돼야 하고” 뚱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아무리 예뻐도 키가 작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체중은 120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등 까다롭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능력이 문제지, 키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않느냐”는 충고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체중이 “130~140파운드라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120파운드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도 좀처럼 수긍하러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리하나’ 결혼정보 센터의 정지선 동문은 미주 한인 결혼 상담 신청자들의 후보 데이터가 많지도 않은데 조건들이 까다로와 성사가 힘들다고 실토한다. 그래도 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하려는 부모나 후보자들의 관심과 신청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

결혼 정보 서비스 이용과 그 양태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 도하의 27세 항공 안내원, 캘리포니아 50세 전문의사 등 자기 소개 리스트가 보인다.

주로 온라인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라이프 스타일’ 서베이 폼을 완성하면 등록이 된다.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크레딧을 구입하는데 최저의 서비스는 웹 사이트서치 엔진으로 물색한 상대에게 Cupiding은 (큐피딩 화살)e메일 보내기 1건당 20센트,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을 만나도록 업체 ‘매치 컨설턴트’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데는 100달러의 크레딧이 필요하다. 자기가 직접 상대방에게 초청 요구를 하는 데는 30달러의 크레딧이 필요하다.

고급 인력 전문 [엔노블]

최근에는 서울대 동문과 자녀들에게 최고 20%의 가입비를 할인해주는 ‘엔노블’(www.nnoble.co.kr.)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 업체는 서울대 동창회와 협력으로 동문 및 자녀들에게 결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서울대 본국 동창회에 광고를 내며 서울대 동문과 자녀들에게 가 서비스를 할인한다.

‘엔노블’은 미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엔노블의 뉴욕지사인 매다니 결혼정보 센터(지사장 한성희, 718-475-6159)에 따르면 이 업체는 전문인을 주 고객으로 하며 가입비는 280달러~880달러다. 170개의 조건을

서 쌍방의 만남이 시작되고 계속 진행되면 그 중간에 관계를 보조해 주며 성사되면, 상견례, 예단, 혼례 절차 등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전 성사가 되면 사례비가 1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후보수가 적어서 한국의 후보와 연결하는 것이 많다고 한다.

배우자 선택 풍속도

이들 업체에 의한 배우자 선택 풍속도를 살펴보자.

우선 인성과 인품, 그리고 종교관이나 가문 등 일반적 환경 조건이 제대로 갖춰진 상태에서 여성측이 가장 중시하는 신랑의 조건은 대략 직업과 장래성이다.

판검사·의사·변호사·박사 등 이른바 ‘사’자 들림의 전문 직종은 여전히 인기 최고다. 여기에 최근 자유 전문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시간 제약없이 자유롭게 직장 그만뒀다 어디서는 생활에는 걱정이 없을 수 있는 컴퓨터 관련직 설계사 디자인 계통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직 여성의 경우는 상대 남성의 직업 외에도 중시되는 조건이 바로 외모다. 외모 중에서도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신장이다. 키가 작은 남성은 ‘사’자 직업이라도 별볼일 없다. “못생겨도 우선 키만 크면 용서가 된다”는 것이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의 이성관이다.

특별기고

김일훈 박사의 '오바마 의료개혁' <3>



김일훈(의대 51)

오바마 정부의 가장 중요 과 제인 '의료보험 개혁안' 이 2009년 12월 21일부터 연방 상원에서 심의 끝에 크리스마스 전 날 상원 타협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러 이제 마지막 고비에 들어선 느낌이었다.

개혁안이 성취되려면 다음과 같은 6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중 중요한 1~3단계는 완료됐고 앞으로 4~6단계가 남았다.

▶완료된 단계=1.의회분과위원회 심의→2.하원안 통과→3.상원타협안 통과

▶앞으로 단계=4.상하원 단일안 협의→5.상하원 단일안 투표→6.대통령 서명

2010년에 들어서면서 젊은 의욕에 찬 오바마는 1월 말에 있을 연두교서 발표 때까지 최종법안에 서명(마지막 6단계)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 같이 민주당은 '메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1월19일) 패배'라는 정치적 이변이 생겨, 의료개혁 통과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상원의석 60표 유지에 실패하고 개혁법안의 앞날 예측이 불가한 상태에 놓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오바마 의료 개혁의 경과를 추적해본 다음, 개혁문제 앞날을 살펴보기로 한다.

완료된 단계

▶1단계=2009년도 여름에 시작해 가을(10월13일)까지 상하원 5개의 분과위원회(Congressional Committee)에서 각각 법안심의를 거친 다음, 상하원지도자 회합에서 적절한 법안상정을 논의했다.

▶2단계 하원안 통과=대다수

민주당의원이 찬성하는 '민주당안'이라 할 하원법안이 11월7일 220대 215표로 하원통과됐다. 특기할 일은 공화당 전원과 보수계 민주당의원 39명이 반대투표 했다.

하원법안의 주된 골자는 '정부관할의 공공의료보험제도(Public insurance plan 또는 Public option)'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원은 부유층(개인 수입 50만 달러, 가족수입 10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세금증가와 더불어, 메디케어 남용억제에 의한 비용절약으로 충당케 했다('오바마 의료개혁 <2>' 참조).

▶3단계 상원타협안 통과=크리스마스 전 날 통과된 상원의 의료개혁 타협안은 민주당 상원의원 58명 전원과 민주당계 무소속의원 2명이 가담해 60표(상원의원 100명중 5분의 3)를 간신히 얻어, 공화당의 의회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머스터를 막음으로써 이루어졌다.

상원 민주당에서 조정한 타협안은 민주당 보수파 주장을 받아들여 개혁안의 골자라 할 공공의료보험(Public option)신설을 유보하고, 개혁에 소요되는 주된 재원으로 '부유층에 대한 세금증가' 대신 '캐딜락세금' 즉 사치성 의료보험인 캐딜락 플랜(*주 1)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메디케어(빈민에 대한 공공의료) 커버 범위는 각 주에 따라 다르며, 대개의 주는 FPL 100%(*주 2)이하의 저소득층을 커버하나 FPL 50% 이하의 국민자만 커버하는 주도 있다.

그런데 이번 상원법안은 메디케어 커버를 모든 주에 동일하게 FPL 133%(하원법안은 1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한 대부분 국민의 보험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FPL 400%이하의 무보험자(*주 3)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앞으로 10년간 8천 710억 달러(\$871B)의 비용으로 약 3천100만명의 무보험자가 혜택을 받아 현재 무보험자를

16%를 6%로 감소시킬 전망이다(하원법안은 3천600만명 혜택과 무보험자를 4%로 감소).

내용적으로 상원안은 지난 11월 7일 통과된 하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법안이다.

그러나 바이든 부통령은 '뉴욕타임' 기고문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만족할만한 법안이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60표 유지를 위해서 일부(2명) 보수파 민주당원의 주장을 수용해 급행열차로 통과시키고, 앞으로 4단계(최종적인 상하원 타협안)에서 완벽하게 보완하려는 전제하에 시간벌기 위한 작전상 후퇴라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래서 3단계 상원 타협안은 민주당 주류가 바라는 내용이 아니었음을 알린다.

주춤,앞으로의 단계

▶4~6단계=4단계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단일화된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며, 다음 5단계의 '단일안'에 대한 투표에서 상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서명(6단계)으로 의료개혁법이 정식으로 성립된다.

그런데 4단계 개막을 앞두고 이번이 생겼으니 1월19일의 메사추세츠 보선(5개월 전에 사망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의석을 채우는 선거)에서 뜻밖에도 공화당 브라운이 당선됨으로써, 지난 46년간 케네디 민주당의 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당은 '안전다수' 60표에서 1표를 잃어 공화당의 의사방해를 저지할 수 없게 돼 법안 단일화(4단계)의 가능성이 무산돼버린 것이다.

메사추세츠 보선결과를 오바마의 인기하락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식어졌음을 말해준다.

오바마는 4단계 진행이 불가능해졌음을 시인했으나 앞으로 힘들다고 해서 의료개혁을 철회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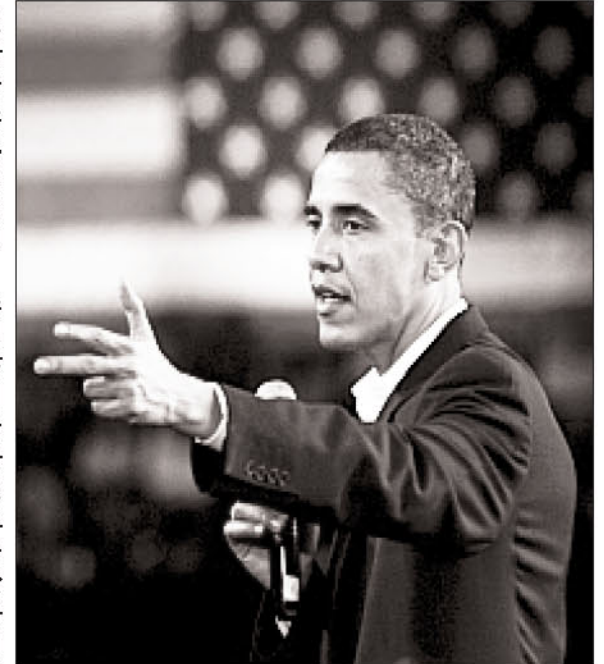
세며, 장시일이 걸리더라도 공화당은 건파의 협조를 얻어 새로운 규모의 의료개혁 성립을 시사하기도 했다.

메사추세츠 보선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주당이 의료개혁을 조속 실현하는 예외적인 수법도 있으니, 이미 통과된 상원안(3단계)을 하원에서 다시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사실 많은 민주당의원들은 상원 타협안(3단계)에 동조하지 않으며, 더구나 다가오는 11월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그들 자신 메사추세츠의 전철(민주당 패배)을 밟지 않기 위해 조속한 의료개혁안을 의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졌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안을 그대로(수정없이) 한 원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못 박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개혁안을 모색할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1월26일자 뉴욕타임지는 사실에서 "오바마 정부서 의료개혁을 포기하는 일은 큰 잘못이다"고 경고하고 "조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 남아있는 가능한 길은 이미 통과된 '상원안'의 기득권을 하원에서 그대로 채용하는 차선택 밖에 없다"고 제언했다.

오바마는 1월 27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두교서 연설에서 첫째 이슈로 당면한 경제대책에 초점을 두어 연설의 2/3를 차지했고 '200만명 고용창출'과 재정회복 등을 역설했다. 그리고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호소하며 개혁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을 다짐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하니 향후 의료개혁의 귀추는 장기간 두고 볼 일이다.

따라서 본고(오바마 의료개혁)는 이번 3호로 끝맺으며, 장차 1개월 또는 1년 후 완성된 개혁법안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구체적인 법안내용 해설을 신기로 한다.

* * * * *

<주1> 캐딜락 플랜'은 부유층이 선호하는 값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의료보험이며 성형수술 등 사치성 시술과 과도한 의료혜택을 허용하는 의료플랜의 속칭이고, 이 플랜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유발해 의료비 지출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고가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정부서 책정한 일정한 요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40%의 소비세(캐딜락 세금)를 지불해야 한다. 이 세금의 목적은 과잉의료를 억제해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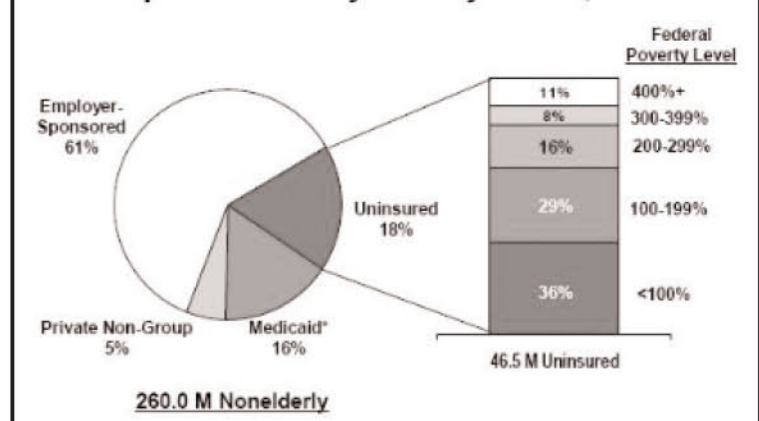
<주2(표1 참조)> 미 연방정부서 책정한 빈민수준 기준은 FPL 100%(Federal Poverty Level 100%), 예를 들어 1인 가족일 경우 연간 수입이 약 1만 달러(\$10,400)이하 그리고 4인가족에선 2만2천50달러 이하를 빈민으로 규정짓고 있다. FPL 150%(표 1 참조).FPL 133%는 FPL 100%의 1.33배임.

<주3(표2 참조)> 정부의 의료커버 대상인 65세 이상의 메디케어(노인보험)를 제외한, 미국인 2억6천만명(2006년도)의 보험커버 현황이다. 65세 미만의 무보험자가 18%이고 표 2의 오른쪽에서 보듯 FPL400%인 중상소득층(4인가족의 경우 연간수입이 8만8천200달러 이상)에서도 무보험자가 11%나 된다. 정부 의료개혁에선 FPL 400%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그들 수입에 반비례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표 1> 2009/2010년도 빈민레벨(FPL 100%) 가이드라인
PL=Poverty, 단위=달러 <출처> 미국연방 보건부(HHS)>

Family Size	100%PL	150%PL	200%PL	300%PL	400%PL
1	10,830	16,245	21,660	32,490	43,320
2	14,570	21,855	29,140	43,710	58,280
3	18,310	27,465	36,620	54,930	73,240
4	22,050	33,075	44,100	66,150	88,200
5	25,790	38,685	51,580	77,370	103,160
6	29,530	44,295	59,060	88,590	118,120
7	33,270	49,905	66,540	99,810	133,080
8	37,010	55,515	74,020	111,030	148,040

The Uninsured -- As a Share of the Population and by Poverty Levels, 2006



동문 미니 논단

아프간 전쟁은 성공할까?

방법은 종교적 화해, 종교 간 상호 존중 밖에 없는 것 같다



이영목 (공대 59입)
제8대 미주 동창회장

오늘도 이곳 워싱턴 외곽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7번 도로는 교통 혼잡으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

오늘이 금요일, 이곳 워싱턴 지역에 있는 이슬람 사원 앞길에는 교통순경이 정리를 해도 항상 차가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마냥 정차되는 곳이다.

창 밖에는 중동계,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등 여러 피부색의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는 얼마 전 정보제통의 모든 책임자들이 하나같이 6개월 내 아프간 어디에 탈레반의 비호 아래에 있는 빈 라덴의 공격이 예상된다는 TV 장면이 떠올랐다.

저 선량하게 생기고 이곳 미국에서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파악하고 잘도 적응해 나가는 저 사람들과 어쩌면 친척이나 친구일 수도 있고 최소한 모두 같이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극악한 자살 테러를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자문하다가 근래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이 생각났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후진타오 주석을 만났을 때 후주석이 던진 말이다.

"You can not afford it." 그 말의 전후는 "당신이 지금 시도하는 의료보험개혁안 그것이 되면 돈 꾸어달라고 하지 마시오. 그러니 그것 해셔야 되겠소" 하는 뜻에서 한 말이다. 나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두 번째가 얼마 전 이라크 정부가 석유 채굴권 계약을 몇 나라와 했는데 놀랍게도 중국, 러시아가 주 국가였고, 한국도 적은 지분이지만 그래도 참여가 됐는데 미국은 완전히 배제됐다.

전쟁을 수행하느라 돈을 퍼붓는 바람에 나라는 빚더미가 됐고, 4천명 이상이 전사, 수만 명이 부상당하고,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나는 정말 화가 났다. 그것도 미국이 지탱해주는 친미적인 정부에서 반미 정서가 두터워 그렇게 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미치자 이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3 만명의 군대를 더 보내겠다고 하고 있고, 나토군의 증파, 한국군의 증파요청 등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아프간 전쟁은 과연 성공할까?

유감스럽지만 나는 회의적이다. 힘으로 얼마간 조용하게 만들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러는 동안 밀바닥에 반미 정서만 더욱 키워갈지 모르겠다는 걱정만 든다.

그러면 무엇이 해결책일까? 그것은 미국인과 아프간인 간에 가슴과 가슴을 여는 방법 밖에

우리 한인들의 교회 친교실을 빌려주자. 그들은 금요일 예배를 본다.

그들은 마룻바닥이건, 양탄자이건 그지 없드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어찌면 이 작은 불씨가 전 미국 교회로 전파될 수도 있고 만일 유대

교가 호응해 준다면 아프간에 사단병력 파견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아프간 사람들 특히 같은 값이면 탈레반들을 미국에 많이 초청여행시켰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미국인들의 무관심에 가까운 만큼 종교적 대립은 추호도 없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깨닫게 했으면 마란다. 한 발 더 나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으면 한다.

물론 그곳에 기독교 전도사업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를 돌이켜 보자. 아프간의 역사에는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정복 후손들이 아직도 여러 마을에 모여 살고 있고, 칭기스칸 후예들이 아직도 수만 명 살고 있을 만큼 외세 침략과 최근에 러시아와 몇 십년 전쟁의 비극으로 피해의식이 있는 그들이 다. 그들에게 기독교란 이교도

사단병력 증파보다 효과적인 것 회교도에 예배장소 빌려 주는 작은 시작

없다. 그리고 그 방법이란 종교적 화해자, 종교 간 상호 존중 밖에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나이지리아 청년이 비행기 자폭을 시도한 사건을 생각해 보자.

지금 그 사건으로 전 공황이 비상이다. 그런데 그 테러범이란 청년은 나이지리아 은행가의 아들로 영국에서 유학을 한 나이지리아의 특권층이다.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피해를 본 사람도 아니고, 빈민가에서 살면서 중오를 쌓은 사람도 아니다. 그런 그가 왜 그랬을까?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적 동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렇다면 해결책인 종교적인 화해를 소위 소수 한국계의 시민이며, 별 볼 일 없는 나를 포함한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가?

나는 천진하다고 할까? 꿈을 꾸는 철없는 아직도 어린아이라 할까?

비록 우리들은 작지만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요원의 불길을 일으킬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본다.

첫째, 작은 시작은 이곳 미국 전 지역에 이슬람교 신도들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는데 그들이 예배를 볼 이슬람 사원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

를 전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이다

나의 이 이야기가 천진하다고 할까, 어린이가 꿈꾸는 이야기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웃어넘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역사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보잘 것 없는 생각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온 여러 사례들이 있다.

이슬람 신도들에게 예배장소 빌려주는 작은 시작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어쩌면 미국이 다시 도덕적으로 전 세계에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다시는 중국의 후주석에게 받은 수모 같은 것을 당하지 않고, 이라크 이란에게서 석유 개발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끝으로 K 라는 분의 글 한 줄을 인용하는 것으로 나의 천진한 생각의 글을 끝내고자 한다.

"우리가 지금 종교 간 대화를 문제 삼는 것은, 종교가 근본적으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제도 속으로 인간을 구속시키는 데서 오는 갈등이 전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전쟁이라는 참혹한 죄악상으로 발전되곤 합니다."

#

감동을 준 영화 Invictus와 지도자론



배규영 (사대 68입)
하를랜드 지부 동창회장

올해는 종전의 기록을 깨뜨리고 한 달 내에 우연히도 영화를 두 편이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빅터스(Invictus)' 영화를 통해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Clint Eastwood 감독, Morgan Freeman과 Matt Damon이 출연한 영화입니다. 주연과 조연 모두 골든 글로브 상 후보에 올랐었는데, 그것은 사실 제 관심 밖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26년간 옥살이를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럭비 국가 대표팀 주장이었던 '프랑소아 피나르(Francois Pienaar)'의 우정을 그려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만델라는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Rugby World Cup)'을 인종갈등 해소의 기회로 삼았지요.

평소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암송했던 시, 그리고 영화 속에서 아주 진하게 그 내용이 부각되는 '나는 내 영혼의 전장'으로 끝을 맺는 시 'Invictus'는 어린 시절 결핵(Tuberculosis)으로 양쪽 다리를 모두 잃어야 했던 영국시인 윌리엄 헨리(William Ernest Hen-

ley)가 쓴 유명한 시입니다.

경영학, 행정학, 정치학, 그리고 사회학에서는 참으로 많은 Leadership Theory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Leadership Theory는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ory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4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즉, Individually Considering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려하는 지도자), Intellectually Stimulating (지적으로 계속 동기를 부여해주는 지도자), Inspiring Remarks (인행에서 감동을 주는 지도자), Ideally Role-Modeling (합목적으로 이상을 추구하는 지도자)입니다. 공교롭게도 4개 지도자의 특징이 모두 'I'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4I 지도자 이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름다! 평소의 지론이었던 이 지도자 이론의 핵심이 '인빅터스' 영화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화는 Leadership, Friendship, 그리고 Self-Esteem이라는 3 주제를 목표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너무나 위대한 Transformational Theory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기에 감동, 또 감동을 한 것입니다.

경호원 가족까지 꿰뚫고 있는 만델라, 대표 선수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또박또박 이름을 불러주는 만델라, 바로 앞에 다가오는 인기에 연연치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철학을 소신껏 밝히는 만델라.

각 분야에서 leadership 역할을 하시는 동창회 선배님, 동문 여러분, 바쁜 시간 중에서도, 시간을 내시어 가족과 함께 이 영화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도 각 분야에서 계속해서 효율적인 Leadership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총동창회 정기 총회

일시: 2010년 3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롯데 호텔 (소공동) 2층 크리스탈 볼룸

내용: 제12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 대상 시상

2009년도 결산 및 2010년도 사업계획 보고

임원 개선, 기타 안건

회비: 없음

- 한정된 좌석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 동창회 154차 관악회, 109차 상임 이사회는 정기 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 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임광수

전화: (02) 702-2233; Email: snua@paran.com

경제 공황기 소설 '분노의 포도' 안 가진 자들의 인간성



문성길 (외대 63 입학)

John Steinbeck의 소설 'The Grapes of Wrath(분노의 포도)'가 특별히 내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아마도 요즈음 경제사정이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세계 경제대공황 때와 비교된다고 야단들 때문인 것 같다. 당시 참상을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만 당시 사회배경을 중심으로 쓰여진 소설, '분노의 포도'가 있어 당시 상황을 유추해 지금과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옛날 영화 '분노의 포도'를 얼마 전 보았기에 내친김에 전에 읽었던 소설을 다시 읽어 보았다. 아무리 난리가 나고 재난이 휘몰아쳐도 있는 자들은 끄떡 없고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만 더욱 비참해지는 것 같다. 아니 그런 와중에 약삭빠른 일부는 더욱 부를 축적하는가 보다.

이 소설은 소설의 두 가지 역할(문학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 중 사회적 기능에 더 중점을 둔 것 같다. 사회가 힘들어지면 부당한 권력이나 부조리에 민감한 지식인, 예술가들은 그에 항거하면서 좌경화하는 사실을 우린 역사에서 보아왔다.

당시 상황은 존 스타인 벡의 이 소설이 나올 수 있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은 기득 극우 보수층의 반발로 당시 공공 도서관에 비치될 수도 없었던 금서중 하나였다고 한다. 후에 노벨 문학상이 주어졌지만,

이 소설은 오클라호마주 어느 시골 영세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전락된 이들의 근심 어린 정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장이 얼마나 중요하며, 특히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남자들이 기죽는 것을 여인들은 제일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남자들이 아직 기죽지 않았음을 보고 여인들은 안도한다.

대대로 열매되지는 않지만 어엿이 자기 땅에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롭지는 못해도 평화롭게 살아오다가 심한 흉년을 만나 은행에 빚을 지게 되고 상환

을 못해 결국 땅은 은행 소유로 넘어가며 그 때부터는 은행 땅을 경작해 소득중 일부를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소위 '소작농' 신세로 전락하지만 더 큰 흉년으로 그것도 감당 못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한 두명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수십만명)이 있다는 것과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불가항력이라는 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은행이라는 게 어떤 곳인가. 능력없는 소작농들 보다는 극소수 인부만 고용,

그녀는 가족의 요새이며, 뗏을래야 뗏을 수 없는 견고한 요새인 자신의 지위를 깨닫고

그 당시 새로 발명된 각종 신형 농기구(트랙터)들을 사용하면 이유는 더욱 많아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 이게 간단히 주판알 굴리기로만 될 문제인가? 여기서 사회의 모순이 발견되며 계층간 분열, 이념 분쟁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 아마도 오늘날 한국 조국에서 노사 분쟁으로 나타나는 현실 근처의 원리도 대동소이한 것 같아 안타깝다.

사람이 조그만 땅 버전을 좀 가지면 그 땅 버전을 자기 것이요, 그 사람의 일부가 되며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간다. 자기 소유 땅 위를 걸어다니며 땅을 만지고, 농사가 안되면 슬퍼하고, 비가 오면 좋아하는 경우 그 땅은 바로 자기란 말이다. 땅 입자니까 일이 잘 안돼도 그 사람은 재산보다는 잘난 셈이 된다.

그런데 땅은 구경도 못하고 만져보거나 그 땅 위를 걸어도 시간도 없는 작자가 땅 입자가 되면 그럴 때엔 땅이 바로 주인이 된다. 그런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자기가 뉘하고 싶은지도 생각도 못한다. 땅이 바로 그 작자며, 그 인간보다도 강하단 말이다. 그런 인간은 절망부고 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커다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은 재산의 머슴이 된 셈이다.

그러나 요즈음 은행들의 작태를 보라. 불실경영의 책임은 커녕 천문학적 숫자도 모자랄 지경의 어마어마한 빚 덩어리를 일반 대중들에게 덮어씌우는 형국이다. 국민의 빚보증으로 나간 구제금융 명목의 돈으로 보너스를 챙기기까지 하는 그들이 아닌가 말이다.

이야기는 다시 소설로 돌아가야겠다. 소작농들은 애걸도, 항거도 해보려 하나 유행과도 같은 실체(은행, 그 배후에 재산가들)를 상대할 수 없어 결국은

자기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하수인에 불과한 대리인에 겨우 화풀이도 아닌 화풀이로 끝내고 그 고장을 분노와 눈물을 갖고 떠난다.

오랜 세월을 걸쳐 어렵게 장만했던 가재도구들을 헐값에 처분하고 좀 더 살기가 괜찮다는 서부, 따뜻한 고장,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처절한 그들의 끝없는 행렬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조오드 일가의 기동인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원문 일부를 그대로 옮긴다.

‘뚱뚱한 얼굴은 부드럽지는 않다. 억제력이 있어 보이는 정다운 얼굴이었다. 개암나무 열매 색 눈은 비극이라는 비극은 거의 다 겪었고, 고통과 고뇌를 계단처럼 하나하나 끝까지 올

지금 이 어느 시대라고? 육을 여성들로부터 다발로 받을 것 같다.

그러나 여성 역할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은 한 집안의 결속과 번창은 물론 결국은 나라의 번영, 흥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도착해 천막촌에 임시로 자리잡고 남자들이 과일을 따서 번 돈(형편없는 저임금이나 그마저 없다면 생계는 커녕 생존자체까지도 위험 지경에 이를 지도 모르기에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약자들의 설움)으로 변변치 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자기들보다도 더욱 어려운 처지의 어린애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여인이었다.

고향 오클라호마를 떠나올 때 종교, 다시 말해 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회의에 빠져 목회를 그만두고 방랑하면서 그 고

장을 지키려 했던 전직 목사님 케이시 아저씨를 모시고 온 것도 그녀와 의협심으로 가득찬 둘째 아들(집안의 양대기둥 중 또다른 한 명)이었다.

그녀는 또한 이런 여인이었다. 오클라호마를 떠나오기 며칠 전 4년만에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토미와 전직 목사 케이시를 집에 데려오면서 아내를 불러주려고 남편 토미, “여보! 마누라, 나그네 두 사람이 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는 데” 라고 말한다.

둘째 아들 토미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다. 한시도 잊혀지지 않던, 조용한, 침착한, 느린, 다정하고, 겸손한 음성이다.

“그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하구, 잔뜩 만들었으니까, 손을 씻고 와야 한다고 그래요. 빵은 다고, 지금 부스리기 고기를 볶는 중이니까.”

그리고 언제나 그녀에게는 가족의 결속이 최우선이었다. 캘리포니아로 가는 도중 자동차

자기가 부자라는 기분을 맛보기 위해 백만 에이커가 필요했다면, 마음 속에 자기가 무섭게 가난하다는 생각 때문

고장으로 인해 식구들이 두 편으로 나뉘지려 할 때, 그녀의 일갈, “돈은 벌여 뭘 한다는 거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 가족이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데, 송아지떼가 한 데 폭 동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모두 튼튼한 몸으로 한 데 모여 여기 있는 동안은 난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여기서 몇년 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등장했던 한 처녀가 가장의 일화를 곁들인다.

부모가 일시에 무슨 사고로 죽



스타인 벡의 흉상

자, 줄지에 동생 넷인가 다섯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당시 대학 프레시덴 학생의 감동 스토리. 이럴 경우 대부분의 경우, 친척 혹은 자선기관을 통해 일단은 팔팔이 형제자매들이 헤어져 위탁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 어린 처녀 대학생 가장은 이를 거부하고 그야말로 피눈물나는 주경야독을 하며 동생들과 함께 어른들도 감히 엄두를 못내는 시련을 극복해냈다는 이야기다.

대단한 여인들의 공통점을 엿볼 수가 있다. 이야기를 소설 속으로 다시 되돌려자.

이들 두 사람(어머니와 둘째 아들 토미)이 있기에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으며 케이시 전 목사와 토미가 있기에 끈임없는 사회의식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었다. 100만 에이커의 땅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1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 사회는 무언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그들의 주장을 누가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 소설 중 일부 내용을 좀 더 옮겨 보면 전직 목사님 케이시의 말쑥은 다음과 같다.

“자기가 부자라는 기분을 맛보기 위해 100만 에이커가 필요했다면, 그건 마음 속으로 자기가 무섭게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 또 마음 속이 가난하다면 제 아무리 땅이 100만 에이커가

있다는 치더라도 부자가 됐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요.

아마도 그 사나이는 무엇 해

도 부자가 됐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을테니까 낙심하고 있을 거란 말이요.

....할아버지가 캘리포니아로 오는 도중 트럭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준비에 필요한 천막을 빌려준 똑같은 이주민인 윌슨택 아주머니 같은 풍족한 기분이 나지 않을 거란 말이요.”

“똥개처럼 분주하게 재물을 긁어모으는 인간치고 낙심 안 하는 인간을 본적이 없소.”

[8 페이지에 계속]

명작 소설 소의 인간에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7페이지에서 계속]

사람들이, 특히 가진 자들이 정녕 현명하다면 자신들의 부를 그대로 잘 보전하기 위해서도 나눔의 정신으로 약한 자, 못 가진 자들에게 너그럽게 베풀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소유한다는 본질이 재산있는 자들을 영원히, '나' 속에 가둬두고,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수없이 많은 혁명의 회오리 바람이 역사적으로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지 않았는가 말이다.

여기 사소하지만 귀를 기울여야 할 말인 것 같아 그대로 옮겨 본다.

“남을 돕는 건 그렇게 해 달라고 안 했다 해서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을 ‘불법’ 운운하며 공권력을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사용해 제압하려는 행태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탄압을 하면, 탄압 받은 자의 힘을 북돋아 주고 그들의 단결을 한층 강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급기야는 폭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재산이 극소수에 집중되면 결국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렇기에 나눔의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 영도하에 건강보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안을 강력히 추진중이고 집을 차압당할 처지의 수많은 사람들을 도우려는 정책들이 한창 시행중이다.

긴 암흑의 터널 반대편이지만 불빛을 보는 것 같아 천만다행이다.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는 있는 자들의 너그러움이 절대 전제조건인데 우매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다시 소설로 돌아가 둘째 아들 토미에 대해 좀더 소개한다.

오클라호마에 살 때 본의 아닌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다. 어느 날 젊은 이들의 파티 때 술에 취한 동네 녀석의 칼부림을 맞게 되고 이에 화가난 톰은 반격을 가해 결국 상대방은 죽고 7년의 형기중 4년간 복역하고 모범수로 가석방돼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때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전직 목사 케이시 아저씨를 만나게 되고 둘은 이주하는 조오드 일가의 기둥 역할을 한다. 조오드가의 어머니와 케이시는 언제나 톰을 보호하려고 한다. 불의를 못참는 성격이라 무슨 일에 재수없게 걸려들면 틀림없이 감옥에 다시 보내질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만일 자네가 이 일에 걸려든다면 자네 가족 전부가, 집안 식구 전부가 성가시게 된단 말

이야. 자네 하나라면 상관 없어. 하지만 자네 어머니 아버지, 그 양반들이 고생을 하게 돼. 잘못하면 톰은 맥알리스터 감옥으로 돌려보내질지 몰라” 라고 말했다. 이렇게 늘 톰을 걱정해주는 그들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수많은 불의를 보게 되고(농장주들의 횡포, 저임금에 갇은 학대, 위협등) 이주농민들을 조직화해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는 도중 케이시 목사는 피살된다. 옆에서 지켜보던 톰이 가만 있을 수 있겠는가? 케이시 목사를 죽인 녀석의 숨통을 끊어 놓는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근처에 숨어 살던 아들의安危를 위해 멀리 떠나가 있으라고 권유한다. 처절하고 애절한 부모-자식의 이별 장면을 보도록 하자. “셋!” 어머니가 긴장해서 말했다. “좀 들어봐라!”

“바람이예요, 어머니, 그제 바

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한 두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집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임신한 몸으로 친정 식구 이주 행렬에 끼어 모진 고생 끝에 사산(死産)을 하고 절망중일 때 심한 폭풍을 피해 들어간 헛간 같은 곳에서 어느 부자(父子)를 발견하고, 이때 어린 소년으로부터 그의 아버지가 오랜 굶주림으로 죽음이 경각에 달렸음을 듣고 자신도 허약해져 거의 같은 지경이나 자신의 젖을 그에게 먹인다.

남을 돕는 건 해 달라고 안 했으니 안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다

람이예요.”

세찬 바람이 개울로 휘몰아치고, 나무들이 그바람에 살랑살랑 울렀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바짝 다가갔다.

“또 한번 만져보자, 톰아. 캄캄해서 도무지 장님이 된 것 같구나. 난 기억해 두고 싶다. 비록 그제 손 끝으로의 기억일 망정...년 여길 떠나야 한다.”

이때 아들 톰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

“보세요, 어머니. 내가 밤낮 혼자 숨어 살면서 늘 누구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케이시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그 양반이 하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언젠가 자기 영혼을 찾으려고 광야에 나간 적이 있었대요. 알고 보니 자기의 영혼이란 건 없더래요. 자기는 다만 굉장히 큰 영혼의 극히 작은 한 가닥만 가지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더래요. 광야에 나간 게 아무 소용에도 닿지 않더래요. 왜 그런고 하니,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극히 작은 한 가닥의 영혼은 남의 영혼과 합쳐져 완전한 것이 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에도 닿지 않기 때문이래요. 이상하죠. 난 그 말이 아주 또렷하게 생각나거든요. 그 때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아무 쓸모도 없다는 걸 이제 잘 알았어요.”

모자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전도서”의 한 구절이래요. 두

그 성스런 모습을 보도록 하자.

“우리 아버지 정말 죽어요, 정말 굶어 죽어요!”

“조용해.” 이러고서 그녀는 이 죽어 가는 사나이를 어쩔 수 없이 지켜보기만하고 있는 아버지와 백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머니와 샤론은 서로 상대방의 눈 속을 깊이 들여다 보았다. 통하는 바가 있는 모양이었다. 딸은 숨결을 가쁘게 헐떡거렸다.

그러고는, 지친 몸을 간신히 일으켜 천천히 구석으로 걸어가 사나이의 그 야원 얼굴과 겹쳐 질려 말뚱거리는 눈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몸을 비틀 듯 더 가까이 가 이불 한 쪽을 헤치고 젖을 꺼냈다. 그리고 사나이의 얼굴을 끌어 당겼다.

[3 페이지로부터 계속]

소득수준과 결혼

개인 소득(세금 보고된 개인 총소득)은 동족 결혼을 한 사람들의 경우 각 세대에 공통적으로 혼혼을 한 사람들 보다 낮은 추세가 드러난다.

- 여성의 경우 1.5세와 2세 동족 혼인자들의 개인 총소득은 혼혼자 경우보다 적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세대를 넘어서 동족 결혼자의 중상위(연간 7만달러 이상) 소득자 비율이

에 대해 센서스 통계로는 단지 문제성을 암시할 뿐이며 좀 더 상세한 답변은 별도의 서베이로 필요로 한다. 혼혼에 관련된 변수들에 관해 학력 수준을 세분해 배우자 선택을 비교하면 다양한 패턴을 보일 수 있으나 여하튼 고학력이 혼혼을 촉진한다는 가설은 이 데이터 초별 분석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더 연구할 과제다.

직장은 결혼 대상자를 만날 기회의 장이기도 하며 직업이 가장 큰 결혼 조건일 수도 있다. 또한 배우자에 의해 신분이 변동될 수도 있으므로 이 변수도 더 분석이 필요하다.

차세대의 신분상승 뒷받침 할 사회 간접자본 조성 연구 필요

남자 혼혼자의 중상위 소득자 위 비율보다 낮다. 단 2세 남성 동족혼의 경우 48.8%가 중상위 소득층에 속한데 비해 혼혼자는 37.5%가 중상위 소득층에 속해 예외적이다. 그 이유는 2세 동족 결혼 남성들 중 자영업자들의 비율 (19.5%)이 높은 때문이다. 이것은 2세 남성중 자영업 사업자들이 동족 결혼을 더 하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맺는 말

동족결혼-혼혼에 관련된 변수

결혼과 개인소득의 관계에도 패턴이 있다는 지표가 이 데이터로 발견되지만 이 원고에서는 단지 문제의 피상적 지표들을 제기할 뿐이다. 이러한 데이터 연구에 추가해 차세대에 과도한 교육투자에서 걷는 성과의 효율성, 즉 그들의 사회-경제적 신분상승(mobility) 실현성과 그를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social capital)의 실태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필자: 이윤모 (사회학 박사)
시카고 Hansa Institute 대표

“자, 어서!” 하며 손을 사나이의 머리 위로 놓고서 얼굴을 만쳐주었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사나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쳐들어 헛간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꼭 입을 다물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로 소설의 대미를 장식한다.

수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이 소설을 읽고 나대로 하나의 의문점을 끌어내고자 한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와 너라고 말할 때는 어딘가 뭔가 둘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느낌이고 너에 대한 나의 배타성 그리고 은연중 너에 대한 나의 우월 내지 우우성(유아독존(唯我獨尊))을 부지불식간에 내포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라고 할 때는 또 어떤가? 뭔가 유사성, 공통점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다. ‘너’와 ‘나’라고 할 때보다 일핏보기엔 더 나은 것 같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도 않고 어느 경우에는 이보다도 훨씬 나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우리’를 협의(狹意)와 광의(廣意)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다. 다 그런 것은 아니나 협의의 경우 잘못하면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고향, 우리 직장 등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집단 이기주의의 ‘우리’가 될 수 있다. 이 지경인 경우 ‘우리’라는 단어를 더 이상 써서는 안되는 이기적 집단으로 간주된다.

광의로서의 ‘우리’는 그야말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아우르는, 소위 종교적, 진경한 의미의 ‘우리’라고 부르고 싶다. 인간이기에 ‘나’를 중심한 이기적 생각에서 ‘너’를 인정하는 아량으로, 너와 함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그것도 종교적 의미의 광의의 ‘우리’로써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낱 꿈에 불과할까?

“남을 돕는 건 그렇게 해 달라고 안 했다고 해서 아니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는 말이 생각난다.

하물며 절망에 처한 약자가 도움을 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박해해서야 어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기원전 347년 사망)은 마지막 저서 ‘법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들보다도 더 무서운 내분이나 갈등이 없는 나라, 그러기 위해서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진 나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차이가 아무리 많아도 4배 이상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 그러면서도 자유롭고 시민들 서로가 화목하며 또한 지성을 지닌 나라”를 이상적 국가상으로 정의했다.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보편적 진리에는 그래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

회고록

출애굽 'Exodus'



이용락(공대 48입학)

이 글은 회보 제186호(2009년 10 월호)게재본(회고록)의 속편임.

나는 16세에 만주(滿州) 봉천(奉天, 지금의 심양)부근 요양의 일본 군수공장 탄약공으로 2차대전 종전을 맞이해 소련군 지배하에서 약 한달 반 포로생활을 하다 조선인 중학생 몇 명과 함께 어른들의 호위를 받으며 봉천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박사 만세”, “김구 선생 만세” 등의 큰 현수막이 우리가 하룻밤을 지낸 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교사 2 층 앞벽에 붙어있는 것을 보며 가졌던 무한한 감격의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정말 우리도 나라가 있었으며, 일본에 의해 강점됐다가 이제 해방이 됐구나” 하는 기쁨 속에 길림(吉林)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를 데리러 오신 숙부님의 말씀으로 중국 상해에 우리 나라의 망명정부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당시 길림에는 과거 일본인과 만주인(중국인) 관리들이 차지했던 모든 관공서 건물에는 이미 장개석(蔣介石) 총통하의 국민당 관리들로 채워져서 흔히 말하는 8.15 직후에 있었다고 들은 사회적 혼란은 당장에는 별로 느끼지 못했다.

이때 쯤, 아버지께서는 8.15 해방과 더불어 즉시 서울로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 오셨다. 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얼마 있다 우리 가족을 남조선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남한으로 가서 서울 황금정(고가네마찌) 3정목(지금의 울지로 3가)가 시작되는 곳에 적산(敵産, 일본인 명의 재산)가옥을 한채 구입해놓고 오신 것이었다.

당시 길림에는 국민학교 교사를 빌려 조선인 중학교도 창립됐다. 나는 조선인중학교 4 학년에 새로 편입돼 한국역사·한글·영어 등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어떤 외부 강사의 강연이 있다고 하여 수업일시 중단하고 전교생 및 교직원들이 한 곳에 모였다. 내 집작으로는 아마 일제하에 만주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활약하고 있었던 애국지사의 강연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강사로 소개된 사람은 중국인 복장의 한 젊은 조선인 청년이었다.

그의 강연 내용을 들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미제국주의의 야망”, “붉은 군대의 승리”, “이승만, 김구 등 매국노”, “김일성 장군의 조국해방투쟁” 등 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를 쓰는 연설을 하고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 돈화(敦化)에서 김일성(金日成)이라는 비적(Bandit)이 주동이 된 무리들이 민가에 침입해 물건을 약탈한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고, 당시 어른들의 이야기로는, 그들은 항일 투쟁을 하는 투사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 들은 청년의 강연에는 다른 애국투사에 대해서는 매국노라고 말하는 것은 웬 일인가!

봉천에서 보았던 현수막에 무한한 감격을 받았던 어린 나로서는 이 강연을 듣고는 극심한 사고의 혼란이 있었다.

강연이 끝난 뒤 질문을 받는

아저씨는 우리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는데 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이 사건으로 아저씨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배하에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들었다.

한편, 이 강연이 있던 후 학우들 중 똑똑하다는 몇몇 동급생들이 열을 올리며, Marx·Engels 이론을 우리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뿐인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배하고 있던 때였지만 낮에만 중앙정부가 지배하고, 밤이 되면 경제불명의 사람들이 10명 또는 15명씩 무리를 지어 밤거리를 누비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특이한 무장은 별로 없고, 몇 사람만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당시 일반적으로 8로군으로 알려졌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모택동(毛澤東)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물론 이들 집단은 중앙정부의 입장으로는 불법단체 행동이었건만 중앙정부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행하는 기차도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은 짐짓 이해하기 어려웠다.

기차역으로 가는 도중 아버지는 “고향가기 전에 청진(淸津)에 계시는 친척 할아버지께 잠시 머물다가 그 할아버지의 안내에 따라 고향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다.

기차역에 도착했더니 대두(Soy Bean)를 북조선으로 운반하는 화물열차가 있었다. 나와 4촌형은 화물차에 올라 콩가마니들 틈새에 끼어 앉았다. 부모님을 뒤로 한 나의 마음이 착잡했다.

드디어 기차는 출발해 가끔 경적을 울리며 엄동의 만주 벌판을 기어가는 듯 했다.

그 밤의 경험은 정말 혹독했다. 이 때가 1946년 2월 27~28 일이다. 당시 만주의 낮 추위는 섭씨 영하 20도는 보통이므로 밤의 온도는 얼마나 내려갔을까?

지금 생각하니, 그때 얼어죽지 않은 것은 천행이었다. 두터운 옷과 모든 방한 준비는

녹이는데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그 술을 마시면 잠이 올 것이고, 자는 동안 얼어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그래도 그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할 만한 마음의 여유 없이 마셨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둘은 잠에 빠졌다. 그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 알 길이 없으나, “학생들 일어나라”는 소리에 다시 깨보니, 어느덧 새벽이 돼 기차는 정거하고 우리를 깨우는 승무원이 있었다.

우리는 밤새 얼어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기차가 선 곳은 만주와 북조선과 국경의 중국측 도시 도문(Tu Meng)을 막 지나 우리의 목적지인 어느 마을(이름 미상)이었다.

거기서 내려 그 짐차에 동승했던 몇 사람과 어느 음식점에 들어가 몸을 녹이고 아침도 먹었다. 곧 우리는 트럭을 타고 청진에 도착했다.

친척 할아버지가 마중 나오셔서,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의 숨을 비로소 내쉬었다.

청진에 도착해보니 길거리에는 3.1절 축하행진 행렬로 가득차 있었다. 이들은 “붉은 깃발, 김일성 장군”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부르며 행진하고 있었다.온 거리에는 김일성의 사진이 곳곳에 붙어있었다. 소련군인들도 많이 보였다.

나는 다시 한 번 놀랐다. 고향 까지도, 만주에서의 분위기처럼,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과 같은 애국지사를 찬양하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 데 놀랐던 것이다. 이어 청진에서 고향인 성진(城津) 부근의 일신(日新)역에 도착해 의가를 찾아갔다.

일신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일신에서 고개를 넘으면 고향이 있는 예동(禮洞)이었다. 나는 일신과 예동을 넘나 들면서 약 3개월 동안 부모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향에서 3개월 동안 예동에 가서 우리 집안의 종손인 큰 집 큰아버지 농사도 도왔다. 큰 아버지가 밭의 긴 고랑에 씨를 뿌리시면 나는 고랑 양쪽의 흙을 덮는 일을 했다.

한 고랑을 마치는 데 20분 정도 걸렸다. 몇 개의 고랑을 마치고 나면 점심 때가 됐고, 이때 밭으로 큰 어머니가 점심을 가지고 오셔서 밭두렁에서 먹곤 했다. 점심으로 내오신 밥은, 뚜껑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잔뜩 높이 담았는데, 감자와 보리 등 잡곡이 섞인 밥이었으나 김치로 한 그릇을 순식간에 푹딱 해치우곤 했다. 나 이 17세 소년이었건지라, 그때 경험했던 그 꿀맛 맛을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 12페이지에 계속 >



1946년 2월28일 경 만주에서 북조선으로 피난할 때 기차로 통과했던 두만강 강가 만주측 도시 도문 지역이다. 나는 지난해 7월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돈화·길림·연길·도문을 여행중 당시 기차철교에 갔으나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어 철교에서 약 500미터 동쪽에 위치한 인도교 중심 북한과 경계선에 가서 한 발짝 북한땅을 밟고 철교를 배경으로 촬영했다. 사진에 철교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시간이 있었다. 당시 교사로 우리학교에 복무했던 나의 5촌 아저씨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던 일본은 소련을 통해서 무조건 항복 의사를 연합국에 전달하려 했으나, 그 정보를 남보다 먼저 얻은 소련은 즉시 소만(蘇滿)국경을 넘어 만주를 침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논평을 했다. 아저씨의 말은 내가 8.15 당시 널리 알려졌던 사실과 같았다.

이 회의적인 청중에 젊은 강사가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장내가 어수선했던 것만 기억이 난다.

힘이 부족했던 것이다.

나는 이러한 어지러운 분위기 속에서 1946년 2월경 조선인 중학교를 4개월 다니고 4학년 졸업장을 받았다. 이때 쯤 8로군의 세력이 점차 증가함을 느끼게 됐다. 밤에 활동하던 8로군의 무장이 점점 강화돼 이제는 대부분이 권총을 휴대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나하고 우리집에 같이 살고 있던 4촌형과 “먼저 고향으로 가 있이라”고 하셔서 우리는 배낭에 책과 몇 가지만 넣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기차역으로 나왔다. 사실 당시 정식으로 운

행했지만 감감한 암흑과 혹한 속에서 밤을 새운다는 것은 끔찍했다. 4촌형과 나는 서로 잠들지 않도록 이야기도 하고 깨우면서 시간을 보냈다. 또 암흑속에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별별 몸부림 짓기도 했다.

기차가 어떤 역에 정차했다. 그때 어떤 어른이 짐차 문을 열고, “학생들 어디 있는가?”하고 우리를 찾았다.

천사의 말씀을 듣는 듯 했다. 아마도 아버지가 단단히 부탁한 결과였다.

그는 승무원이었다.그러면서 중국 고향주를 권했다.이 술은 매우 독한 술이므로 몸을

동문 수필

로렌스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

강 민 영 (지구과학교육 90)

아직 검푸른 하늘에 여명이
비칠 때 숨결같이 하얀 커튼을
살며시 열어젖히면 안
뜰이 내리막길치다 멈
춘 곳에 다정하게 어깨
를 맞대고 서 있는 나무
들은 채 잠에서 깨지 않
았고, 부드러운 곡선으
로 이어지는 조용한 길
 건너 이웃의 지붕들이
줄음에 겨워 고개를 들
지 않았을 때 동쪽 발코
니 너머 작은 수풀 위에는
새색시같은 분홍빛이
감돌기 시작한다.

검푸른 하늘에 열정적
인 주황빛이 굵은 선을
그리고 나서 여명과 함
께 밝아오는 하늘빛에
분홍색이 감돌 때 나의
가슴은 한껏 부른다. 참
아름답다.

새벽을 여는 분홍빛은 강렬
한 햇빛에 스프르 자취를 감추
었다가 석양이 몰들 때 다시 나
타나서는 좀더 오래 머물다 간
다.

‘Seeing sky-blue pink’란 책
제목이 참으로 역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렌스의 아름다운
하늘엔 맑은 날이면 어김없이
sky-blue pink가 두 번 곱게 물
든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하늘
은 평생 처음 본다... 남편과 나
는 동의한다.

겨울이던 시리도록 맑은 관악
의 밤하늘에 망원경의 한 끝을
향하며 좀더 많은 별빛이 쏟아
져 들어오기를 소망했던 시절,
관악의 밤 하늘을 수놓았던 그
겨울철 별자리가 로렌스의 하
늘에서는 더욱 밝고 밝고 아름
답게 빛난다. 더 많은 별들이
함께 어우러져 화려하게 차가
운 밤하늘을 수놓는다.

우린 관악에서 만났다. 90학
번 새내기로 함께 입학해 대학
과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며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부
부가 되고, 미국으로 훌쩍 건
너와서는 서로 의지하며 고군
분투하며 살았던 지난 20년...
우리가 함께 한 삶이 아름답게
빛난다.

아름다운 로렌스에서 지난 10
년의 미국생활을 되돌아 보며,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켰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 감
사하게 된다. 지혜로운 마음은
시련 중에서도 보석처럼 빛나
는 교훈을 찾아내는 법. 어려
움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앞으
로 걸어나가는 이성적이고 열
정적인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중 하
나가 아닐까.

과거에 공부했던 것과 그동
안 쌓아왔던 경력과는 전혀 다

른 길을 걸
어 보고 자
결을 마를
시작하며
차분한 흥
분을 느낀
다. 교단에
처음 서서
아이들과 함께 '늘 처음처럼'
이란 말을 마음에 새기던 날처
럼,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
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
할 때나 병들 때나 평생을 신



의와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던 날처럼, 나를 통해 세
상에 태어난 내 아이들을 바라
보며 '이 아름다운 존재를 평
생 사랑할 수 밖에 없다'고 느
끼던 날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끼고 사랑하
리라' 다짐해 본다.

사랑하리라. 사랑하며 살리
라. 내 힘껏 사랑하리라.

마음과 열정과 재능과 지혜와
지식을 내 목소리에 담아 이 세
상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아름
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
이 노래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행복을 찾아내며 사는 이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이 풍성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자신들을
당당히 세울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용히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살 것
을 다짐해 본다, 아름다운 로렌스
에서...

지구과학교육과 90학번 강민
영입니다. 대학원 석사 94학
번, 박사 96학번이구요. 제 남
편 이영진은 현재 KU교수로 일
하고 있고, 저와 학부와 석사
를 같이 한 동기 동창입니다.

저희 부부와 10살된 아들 이
제승, 8살된 딸 이보영, 이러
게 네 가족이 로렌스에 살고 있
습니다.

임소연님 덕분에 새해에 처음
으로 하틀랜드 지역 서울대 동
창회에 e메일 주소를 올렸어
요. 동창회 소식 감사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9월 한국에서 저의
책이 출간되면서 저자가 되었
습니다. 제목은 미국 학교에서
의 경험과 교육과 삶에 대해 이
야기한 책('한국엄마 아이 따
라 미국 학교에 가다')이구요.



폭설속 단상

박 평 일 (농대 69 입)

88년만의 폭설! 이틀 동안 하늘은 자비하지
않았습니다

낭만적인 눈에 대한 나의 추억은 사치고 착오
였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연상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이 아니라 눈이었습니다.

먹이를 찾아서 눈 속을 헤매는 짐은 까마귀 한
마리의 질규하는 울음소리가 폭설의 끝을 알려
왔습니다.

미 대륙의 이민자들에게 눈은 처음부터 잔인했
습니다. 첫 백인 침략자 청교도들에게도, 황금
을 찾아서 서부로 향했던 서부 개척자들에게도
눈은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미대륙 상공을 방황하고 있는 미국 원주민 인
디안들의 한, 절망, 분노, 아픔, 저주 그리고 슬
픔들이 흘러고 있는 치절한 눈물인지도 모릅니
다. 그래서 잔인합니다.

드라이브 웨이에 휘어져 쓰러져가는 상록수 한
그루.

“넘어질 땅정, 결코 죽을 수는 없다” 라는
생명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허리까지 치는 눈길을 뚫고 케를, 아들과 함께
구출작전을 펼쳤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 삶은 값싼 희생
이 아니라 죽음과 일대 일의 교환이다’

우리들은 가지들을 사정없이 잘라 냈습니다.
온 힘으로 나무를 흔들어서 가지에 얼어붙어 있
는 눈들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무는 우리들이 가
지고 간 도끼를 떨리는 눈으로 응시하면서 서서
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통을 찢혀 죽는 것보다는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도라도 살아야겠다’ 라는 삶에 대한 무서
운 집념이었습니다.

물과 전기는 더 이상 문명의 이기물이 아니었
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오랫 동안 죽어 있었던 파이어 플레이스를 장
작으로 다시 살리고, 장작이 바닥이 나자 나중
에는 신문지들로 파이어 플레이스 줄음을 막아
야 했습니다.

어둠은 희미한 촛불이 지켜야 했습니다.
화장실은 밖으로 피신하고, 샤워는 전설 속의 그
리움이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며칠 동안의 분노를 멈추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도 보였습니다.

만가했습니다.
그믐달이 늦게 잠에서 깨어나 동쪽 하늘에서 추
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는 생존경쟁에서 천수를 누릴 수 없
습니다.

몇 시간 후면 태양이 떠오르고,
저 게으른 달은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빛 속에

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온 가족이 제설작업을 시
작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았던 스노 블로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삽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삽이 없으면 손으
로라도...”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강의했습니다.

어제 제설 작업을 하던 일꾼들이 기계 고장으
로 도중에 중단했습니다. 그들이 오늘 고친 스
노 블로워를 가지고 다시 왔지만 또 고장났습니
다.

제설 트럭으로는 눈의 두께 때문에 불가능하
다고 합니다.

그 일꾼들에게 한 번 밖에 쓰지 않았던 내 스
노 블로워를 주면서 고쳐서 사용한 후 되돌려 달
라고 했습니다.

행복감으로 활짝 웃는 그들의 얼굴이 우리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다소라도 녹여 주었습니다.

2피트가 넘게 쌓인 눈길을 삽으로 다섯 시간
동안 치워야 했습니다.

땀이 나서 스노 자켓도 눈 위에 벗어 두어야 했
습니다.

눈 속에 며칠간 살아남기 위한 비상사태 선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 차 한 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눈더미 속에서 꺼내 놓아야 한다’

화요일까지 전기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전기회
사의 비보에 이웃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호텔로,
가족들 집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나도 며칠간 호텔에서 머물 비상계획을 세워
서 가족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모두들 반대했습니다.

한 식구로 사는 게 ‘재만’ 이를 호텔에서 고
객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재만이와 함께 살고 죽어도 재만이와
함께 죽어야 한다’ 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눈 속에 파묻힌 포 쉘 드라이브 내 차를 겨우
꺼내서 필요한 비상 식료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눈길을 헤쳐 나갔습니다.

전기가 있는 가게들이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받
고 있었습니다.

세삼 무서운 비즈니스 정신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인류의 문명은 바로 이런 인간들의 돈에 대한
탐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탐욕을 죄로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탐욕
속에 사용과 나눔의 숭고함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하늘은 청
청합니다.

새 날입니다.

<버지니아 눈 속에서>

기 고

정신경제학



이원택(의대 65입)

필자는 원래 찢돌이로 태어났지라 돈을 아끼거나 물품 재 활용에는 도가 튼 사람이다. 그런데 정신 생리학을 공부하다 보니 창조주께서는 찢돌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진짜 대왕소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원래 돈 좋아하는 찢돌이 이 발견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아직 사전에도 없는 정신경제학(psychoeconomics)이란 말을 만들어내 읊어먹게 됐다. 찢돌의 정신경제학이란 좁은 의미로 우리 신경계가 얼마나 값싸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원칙(Basic Economics)

경제의 원칙이 무엇인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보는 것, 인정사정 안보는 것, 될 수 있으면 남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한번 몰았다 하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 것, 자손손 물려가며 영계백세(永繼百世)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보다는 돈과 마찬가지로 들고 들고 놓아야 한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요즈음같이 경제가 나빠지는 말은 돈, 물건, 노동력, 나아가 기술과 문명, 더 나아가 남녀간 사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경제학에서 찢돌이도 중요하지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뚜쟁이도 필요한데 과연 대왕소금 창조주께서 '소금과 빛'에서처럼 군데군데 양념을 치셨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푼돈모으기(Petty Cash)

한번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펑크로 차를 길 옆에 세워 놓고 긴급출동차가 오기를 기다리다 보니 수많은 1센트짜리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돈을 운반하던 차량이 사고가 났던지 해서 쏟아져 나왔을 것으로 짐작됐다.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찢돌이 한여름 땀뭍속에서 한 30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주는 동전이 맥도날드에서 커피 마시고 남은 종이 컵에 가득차 제법 목직한 것이 공짜돈 번 것만 같아 기분이 좋았다. 집에 와 세어보니 약 200개 정도였는데 2달러 밖에 안되는 것이었지만 돈은 돈이 아닌

인체는 창조주의 경제 효율적 창작품

정신경제에 찢돌이뚜쟁이도 필요, 우생학근본적 변화

가. 그래서 은행에서 바뀌달라니 돈이 너무 망가져 바뀌줄 수 없으니 중앙은행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돈 좁느라 30분, 세느라 10분, 바꾸느라 한시간 반 이상, 2달러 버느라 2시간 이상 소비해야 하니, 사람들이 왜 1센트짜리 동전은 거들며 보지 않았는지 이해가 갔다. 그러나 찢돌은 돈을 모으려면 길가에 떨어진 1센트짜리부터 쟁겨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잘 간수하면 50년쯤 후에는 구리값이 올라 10배는 족히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와 돈 버는 업종 중 부부가 같이 하는 소규모 마켓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도심부 못사는 동네에서 잘 된다. 왜냐하면 못사는 사람들이 일수록 대형마켓이나 할인 매장에 가 줄서서 기다리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값이 좀 비싸지만 시간 안 걸리는 구멍가게를 애용하고 있다.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가 모토인 이들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종갓돈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시간으로 돈을 살 수 없다. 소위 ‘엄마아빠 구멍가게’가 돈 벌 수 있는 것은 조그만 자본을 투자해서 부부가 쉬지 않고 새벽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정신경제학 원리도 일반경제학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비축했다 적재적소에 재활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찢돌이(Stingy Creator)

본론으로 돌아가 우리 각자각자는 너무나 고귀해서 사람의 몸값을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인체는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나 플래티늄이 아닌 지구상에 널린 Na·Cl·K·Ca·H·C·O·P·N등으로 구성돼 있다.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도 싸구려 물질에서 몇 단계 탈바꿈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예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킨다는 도파민(dopamine)은 필수아미노산 티로신(tyrosine)의 팔에서 CO2가 떨어져서 OH가 붙은 것이며, 우울증 치료에 필요한 세로토닌(serotonin)은 필수아미노산 트립토판(tryptophan)에서 OH가 붙고 CO2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서너 단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살짝 살짝 바뀌어 dopamine이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이 되고 에피네프린(epinephrine)도 되며 serotonin이 멜

라토닌(melatonin)이 되기도 한다. 더구나 서로 상반 역할을 하는 안드로젠(androgen)과 에스트로젠(estrogen) 또는 estrogen과 프로게스테론(황체호르몬 progesterone)의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만약 남성호르몬 androgen이 들어갈 자리에 여성호르몬 estrogen이 들어가면 혼란도 이런 대혼란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창조주는 남자 역할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은 대충 만드셨으나 그것을 수용하는 수용기(receptor)만큼은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나니, 이는 양쪽에 다 돈 들여 비싸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철저한 경제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수컷은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하나 암컷이야말로 가히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모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그려보라고 하면 남성은 불알 두쪽 작대기 하나인데 여성은 그리 간단치 않다. 외모도 그렇지만 내면은 더 복잡하다. 즉 남성(신경전달물질)은 대충 생겨서 아무나 여기저기 찢돌이지만 여성(접수수)은 자기하고 꼭 맞기 전에는 이놈 저놈 마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목돈 만들기(Round Money)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다가 “앗 뜨거”하고 손을 떼는 동작은 1초도 안 걸린다. 그러나 그같은 동작에는 수만 개 신경세포가 수만 개 접합점을 지나 수십 리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를 통과해야 한다. 신경세포가 어떻게 작동전위를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신경섬유의 소구(axon hillock)를 통과하는지는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같은 작동전위가 손끝에서 시작해 대뇌 피질까지 갔다가 한바퀴 돌아 나오는데 1초도 안 걸리는 이유는 그 전깃줄의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는 데 있다. 모든 전깃줄과 마찬가지로 전기를 낭비없이 빨리 전달하려면 절연체로 둘러 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초(말이집, myelin sheath)다. 미엘린은 신경세포와 달리 재생이 가능하나 파괴되거나 재생이 안돼 생기는 병이 각종 근육의 작동이 안되는 다발성 경변증(multiple sclerosis), 술 중독에서 오는 베르니케(Wernicke)씨병 또는 당뇨병에서 보는 말초신경염 등이다. 이같은 수초형성(myelination)은 태내에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출생후 필요하기 바로 직전 만들어진 다. 예를

들면 걸음마를 시작하는 1살쯤 되면 뇌에 다리운동을 관장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수초가 형성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2살쯤 되면 뇌 언어중추의 벽이 두꺼워진다. 시력도 어릴 때는 흐릿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대역섯 살이 돼서야 형제들간에 누구 밥그릇이 큰가를 알아볼 수 있는 20/20이 되는 것이다. 즉 창조주는 무거운 옷 보따리 싸고 다닐 필요없이 그때그때마다 겨울이 오면 등복, 여름이면 하복을 쟁겨준다. 뇌의 구조를 보더라도 표면이 밋밋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주름살로 접혀 있기 때문에 다 펴보면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다. 뇌 내부에는 뇌수로 찬 뇌실(ventricle)이 군데군데 있어 팽동을 어디다 부딪쳐도 좀체로 뇌가 망가지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다. 서두에서 사람의 뇌는 귀족동네라고 했다. 이렇게 고귀한 분들이 사는 동네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들어오면 어쩔 것인가. 그래서 모든 물질이 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혈뇌장벽(blood brain barrier, BBB)을 통과 해야 되는데, 음식으로 섭취한 물건들은 거의 모두 무장해제를 하고서야 통과할 수 있고, 간이나 콩팥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도 변장하지 않고는 BBB를 통과하기 힘들다. 그래서 신경계통 제약회사들이 제일 신경쓰는 일이 어떻게 하면 그 약들이 문지기를 속이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고달프고 지루한 과정을 통해 장만한 뭉돈을 가지고 앞으로는 짱구를 잘 굴려서 잘 써먹어야 할 것이다.

목돈 굴리기(Investment)

인간이 문명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투자를 잘 해서일 것이다. 투자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욕심이다. 욕심이란 한 마디로 이기심이다. 새로 나온 신경경제학(neuro economic)이란 말은 요즈음 PET나 SPECT영상같이 비싼 장감을 가지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죄수의 고민’ 같은 짱구를 많이 굴려야 될 때, 뇌의 어느 부위가 번쩍번쩍 빛이 나나를 보면서 그 이해타산을 따질 때 쓰는 모양이다. 즉 신경경제학이란 한 마디로 인간의 욕심을 연구하는 학문이니 제목도 범위를 넓혀 정신경제학(psychoeconomy) 또는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y)으로 불려야 될지도 모른다. 우생학 용어중 이기적 유전자(selfish gene)가 있다. 우선 정자가 배출돼 난자에 도달할

때는 정말로 X나게 뛰어야 한다. 왜냐면 20억~30억개나 되는 경쟁자들을 따돌려야 되기 때문이다. 이때 정자는 서로 다른 정자를 죽이려는 독소를 뿜어낸다고 한다. 특히 다른 남자의 정액에서 나온 정자한테는 독소가 더 강력하게 작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 방사는 열번 해도 질 세척은 다섯번 밖에 안하는 직업여성들은 좀체로 임신이 잘 안된다. 그리고 일단 수태가 되고 나서도 지난번 각인유전자(imprinted gene)에서도 애기 했듯 정자의 DNA와 난자의 DNA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 모든 동물에서 태아가 발육할 때 정자는 될 수 있으면 난자가 에너지 많이 쓰도록(투자하도록) 유도하고 난자는 가능한 한 에너지를 덜 쓰려고(비축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계백세(The Eternity)

일단 태어나서도 태아의 앞길은 순탄만 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인정이란 것이 있어 좀 덜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갓난애는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엄마의 젖을 빨아 먹으려 하고 엄마는 가능한 한 빨리 젖을 떼려 하고 있다. 젖을 빨리 떼면 계속 유즙분비촉진제(prolactin)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성의 배란을 적극 방해하고 있다. 엄마 입장에서 빨리 젖을 떼야 배란하고 또 다음 번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섬찍한 예를 든다면, 어떤 동물의 세계, 특히 송자가 진출하는 선수권 대회 중(tournament species)에서는 고전분투 후 쓰디어 챔피언이 된 송이는 자기가 군림하는 때까지의 모든 영아들을 다 죽여 버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의 에미들이 젖샘분비가 안 되고 따라서 곧 배란을 시작할 수 있어 하루 빨리 교접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과거 우생학자들이 모든 생물은 자기 종족의 번영을 위해 변화한다고 했는데, 요즈음 정설은 모든 생물은 종족이 아니라 자기 개개인의 씨를 뿌리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태어났다고 한다. 즉 얼마나 많은 자신의 DNA가 살아 남느냐 하는 것이다. 사람이 돈 버는 목적도 마찬가지다. 혹자는 국가와 민족, 세계평화 또는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라고 할지 몰라도 따지고 보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오래 살려고, 또는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각인하러 말버둥 치는 게 아닌가.

음악칼럼

팝송 이야기<5> Blues

미국을 정복한 흑인음악



주혜정 (음대 92)

블루스를 논하기 전에 먼저 'Race'와 'Hillbilly'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죠. 이 용어는 1920년대 초반부터 1940년 후반까지 미국 남부 음악을 분류하는 용어입니다. 'Race Records'는 미 흑인들을 주 타겟으로 미 흑인 연주자들의 레코딩을 녹음했고 'Hillbilly' 음악은 반면에 백인들을 위한 백인 연주자들의 레코딩입니다. 분명히 다른 타겟이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Folk Music'입니다. 블루스는 'Race Records'의 가장 영향력있는 음악 장르였습니다. 기원은 19세기 말 남부 지역의 흑인 사회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Mississippi Delta'에서 텍사스 동부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블루스는 미국 팝 문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나 차츰 하나의 장르로 생성됐습니다.

블루스는 크게 'Classic Blues'와 'Delta(Country) Blues'로 나뉘어집니다. 실질적인 흑인에 의한 블루스 음악의 첫 레코딩은 Mamie Smith의 'Crazy Blues'입니다(Nigger Blues: 블루스 타이틀을 단 첫 레코딩이나 백인이 불렀습니다). 블루스 음악은 전문적인 작곡가들에 의해 작곡됐습니다. 그들은 주로 중산층의 흑인들로서 댄스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Ragtime'을 작곡했습니다. 클래식 블루스는 실력있는 나이트 클럽의 가수들에 의해서 불렀습니다.

대표적인 가수는 Alberta Hunter·Ethel Waters·Gertrude 'Ma' Rainey(블루스의 어머니로 불림)·Bessie Smith(블루스의 여왕이라고 불림) 등이 있습니다.

이 중 Rainey와 Smith의 레코딩은 백인과 흑인 사회에 다 같이 많이 팔렸고 그 이전의 다른 음악들(Minstrel·Ragtime)보다 더 많은 미 흑인 음악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Bessie Smith(1894~1937)는 1920~30년대의 가장 인기있는 블루스 가수입니다.

그녀는 흔히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가수 중의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며 Louis Armstrong과 함께 후대의 재즈 가수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녀는 그 시대에 가장 성공한 흑인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녀의 대표곡은 'Blackwater Blues,' 'Aint Nobody's

Bizness,'와 'St.Louis Blues'가 있습니다.

그녀는 Billie Holiday·Sarah Vaughan·Aretha Franklin 등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St.Louis Blues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블루스 곡입니다.

이 곡은 미 백인들에게 블루스를 소개한 것으로 백인·흑인에게 다같이 많이 팔린 히트곡입니다. AABC의 형식으로 A와 C는 전형적인 12마디의 블루스 구조인데 B는 단조며 라틴 아메리카의 댄스 음악 리듬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곡은 Tin Pan Alley의 형식에 미 흑인 음악(Blues), 라틴음악이 잘 섞여 있는 훌륭한 곡입니다.

Country Blues는 Rural·Delta·Acoustic·Folk·Down-home Blues라고도 불립니다.

Country Blues는 처음에 Mississippi Delta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블루스는 흑인 일꾼들의 음악이었습니다. 초창기 블루스는 다양한 타입의 미 흑인 포크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영국의 발라드 전통도 들어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Classic Blues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2마디의 구조, 세 개의 화성 패턴, 3절의 가사-반면, Country Blues는 조금 더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8마디 혹은 16마디의 형식도 있고, 세 개의 이상의 화성을 쓰기도 합니다. Country Blues는 주로 구전에



Country Blues의 대표 아티스트로 꼽히는 Robert Johnson

의해 후세에 전해주었습니다. 귀로 익힌 멜로디를 외워서 전했던 것이지요.

1인칭 시점의 가사가 쓰였으며 내용은 주로 어려운 삶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불려진 때는 1920~30년대입니다. 악기는 매우 단순하여 주로 기타 하나만 쓰였습니다.

미 흑인 음악 전통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Call & Response 형식, 당김음, 거친 사운드, 즉흥 연주 등입니다.

주로 시골의 연주자들에 의해 불려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Robert Johnson(1911~1938)입니다.

그는 가장 유명한 컨트리 블루스 아티스트였으며 그의 창법, 기타 연주, 작곡법은 후대에 많은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흑자는 Johnson을 록 앤 롤의 할아버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 뮤지션으로는 Led Zeppelin·Bob Dylan·Jimi Hendrix·The Rolling Stone·Eric Clapton이 있습니다.

Robert Johnson의 대표작으로 Johnson의 기타 연주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12마디 블루스의 기본 형식이며 세 개의 코드가 쓰였습니다.

다음에는 Hillbilly음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9페이지에서 계속 >

예동은 워낙 시골이므로 아직 김일성을 찬양하는 요원들은 없었다. 그러나 일신은 예동보다 마을이 크고 어른들은 대체로 정치활동에 바빴다.

그중 김일성을 신봉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젖은 노동당·여성동맹 등의 단체와 일부는 천도교 청우당·민주당 등 비노동당 정당인도 있었다. 당시에는 제법 다원적인 사회 정치체제가 태동하는 듯 했다.

어느 날 기다리던 부모님이 고향으로 오셨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의 만주 소식도 듣게 됐다. 만주를 떠날 때 점점 세력을 강화하던 8로군이 중앙정부군과 만주지역 각처에 걸쳐 일부 지역에서 노골적으로 중앙정부 치안군과 대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급기야는 국공(國共)양측이 정면 대결로 전투를 벌일 정도로 악화됐다. 그리하여 만주지역은 곳곳에서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

그러나 워낙 넓은 지역이고, 부장면에서 훨씬 열세에 있던 8로군이 어떤 지역을 완전히

차지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으나, 일단 이 지역을 기반으로 공세로 나선 8로군의 계속적인 승리가 급속도로 파급돼 중앙군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반격했지만, 전세는 8로군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됐다.



남한 Exodus전 머물렀던 만주·북한 접경도시 도문지역이다.

그러나 국민당 중앙정부군의 공격적 패배원인은 부정부패의 결과이리라. 중앙정부군이 무기를 8로군에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널리 알려졌었다. 따라서 8로군에 의한 만

주전역의 정복은 시간문제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와중이라 부모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북조선으로 식량운반하는 마지막 화물차를 타셨다. 우리집에 살고 있던 5촌 아저씨와 6촌누님을 데리

신한 후 아버지와 숙부님과 큰 언쟁을 하시는 것이었다.

만주에서 두 형제는 참으로 한 몸같이 우리 집안을 풍성하게 키워오셨다. 숙부님은 성실하고 정직하셔서, 아버지가 꾸며놓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얻은 재산을 보관하고, 회사 살림을 잘 하시었다. 그리하여 두 분중 한 분이 없어도 완전한 사업성공은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러한 두 분 인지라, 싸우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더욱이 아버지 말이면 늘 복종하시던 숙부님이 아버지에게 대항하는 것은 내 기억 속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언쟁 내용인 즉, 아버지는 '모두 남조선으로 가자'는 것이었고, 숙부님은 '여기가 살기 좋은데 왜 남조선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솔직한 의문을 가진 것이었다.

당시의 북조선 상황은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독재정권이 확립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숙부님은 말씀대로 살만했다. 숙부님은 성진(城津)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숙부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듯 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경제를 이미 내다보신

아버지는 긴 안목으로 남조선에 가기를 설득하셨으나 끝내 숙부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도 내심 숙부님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뿐다고 숙부님이 그 때 좌익사상에 몰들어 있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정든 고향을 쉽게 떠나기를 좋아하리오!

그리고 며칠후, 아버지가 떠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에 우리 식구들만(아버지·어머님과 나) 집을 싸서 외가집을 조용히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도 묻지 않았다. 가는 곳은 선창가 쪽이었다. 선창가에는 매 한척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때야 지금 우리가 남한으로 탈출하는 순간임을 알았다.

외가 식구들 중 외삼촌과 외숙모에게만 알리고 집에서 조용히 떠난 이유를 알게 됐다.

이제 되돌아보니, 17세까지 자란 '나의 고향' 만주 땅을 떠나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따라 북조선을 거쳐, 또 다른 간도(間島)와 다름없는 남조선으로 떠나는 이 길은, 우리 가족으로서는 나름대로 '출애굽(Exodus)'이었다.

고국 동문동정

수상·인사·부음

수상

▲이재창(법학56-60 환경처 전 장관·새마을운동 중앙회장)=1월 15일 경북고등창회로부터 제19회 경북동문대상 수상.
▲손옥(기계공

63-67 농심 회장)=1월 25일 한국공학한림원 제6회 일진상(공학한림원 발전 부문) 수상.
▲제갈정용(상학65-72 대림학원 전 이사장·대림대 총장)=최근 한국 언론재단에서 올해의 자랑스런 밑알인상수상.

▲김유항(화공 62-66 인하대 교수)=1월 18일 국내 화학공학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고 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서울인상 수상.
▲서동희(응용미술66-70 건국대 교수)=12월 12일 한국디자인협회 회 생디자

인공모전에 서 지도교수상 수상.
▲최정익(외교 69-73 주독일 대사)=1월 21일 독일 대통령궁에서 호르스트 뮐러 대통령으로부터 대접자공로훈장 수훈.

▲김두희(토목공학76-83 동아사이언스 대표)=1월 25일 한국공학한림원 제5회 해동상(공학기술문화확산부문) 수상.
▲도성호(법학77-81 중앙대 교수·인권대사)=12월 29일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김중겸(AMP 64기 현대건설 사장)=최근 한경비즈니스가 선정한 '2009 올해의 CEO' 비제조업 부문 대상 수상.
▲박규환(물리 78-82 고려대 교수)=1월 21일 한국광학회 총회에서 '올해 성

도 광과학상' 수상.
▲설도원(SGS 21기 삼성테크놀로지스 전무)=1월 21일 제11회 자랑스런 연세MBA상 수상.
▲안승준(ALP 3기 삼성전자 전무)=1월 25일 한국공학한림원 제5회 해동상(공학교육혁신부문) 수상.

인사

▲유준항(법학51-66 함경남도 전 지사)=1월 15일 임기 4년의 제2대 誠齋李東輝선생기념사업회장에 취임.
▲김영열(지질과학56-60 한국일보 전 부사장·서울경제신문 전 사장)=최근 법률방송(COURT TV) 회장을 맡아 국민의 법률서 의식 향상과 법률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안무혁(대학원62졸 전 국회 의원·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지난 1월 25일 제40대 황해도 중앙도 민회장에 취임.
▲나종일(정치59 ~ 63 우석대 총장)=1월 25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장에 위촉.

▲이천수(법학 61-65 교육부 전 차관·대전대 총장)=1월 23일 임기 4년의 대전대 제6대 총장 재선임.
▲박성현(화학 64-68 모교 통계학과 교수)=1월 1일 임기 2년의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에 선임.

▲최명애(간호66-70 모교 간호학과 교수·의학한림원 정회원)=1월 21일 한국간호학회 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선임.
▲박진우(산업공학70-74 모교 산업공학과 교수)=1월 8일 임기 2년의 한국

경영과학회 제22대 회장 선임.
▲강지원(정치68-72 변호사·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상임대표)=1월 25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분과위원장에 위촉.
▲홍성제(전자공학69-73 포스텍 교수)=1월 1일 한국연구재단 전자정보단장에 선임.

▲오주원(농업교육69-74 한남대 교수·대전 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지난 1월 26일 한남대 부총장에 선임.
▲이기수(대학원70-72 고려대 총장·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1월 27일 임기 2년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 선출.

▲구관서(사회교육 70-77EBS 전 사장)=1월 14일 임기 4년의 대구산업정보대 제12대 총장에 취임.
▲이원덕(경영70 ~75 한국노동연구원 전 원장·경원대 석좌 교수)=1월 25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계층분과위원장 위촉.

▲정운오(무역72-76 모교 경영학과 교수)=1월 16일 한국세무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정진성(사회72-76 모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1월 25일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새대분과위원장에 위촉.

▲허일섭(경영73-77 녹십자 회장)=지난 1월 20일 재단법인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제2대 이사장에 선임.
▲정인덕(경제73 ~7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 부원장)=최근 경제협력개발기금(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재선임. 또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

▲김성제(경영72-76 한국외국어대 교수)=1월 25일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부총장 선임.
▲김부찬(법학 74-78 제주대 교수·해양경찰청 국제해양법 위원)=1월 7일 대한국제법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이시형(외교75-79 외교통상부 전 본부대사)=1월 26일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행사기획단장에 임명.
▲황원준(경영 75-79 산업은행 국제금융실장)=1월 15일 산업은행 국제금융본부장(부행장)에 선임.
▲노승정(원자핵공학75-79 단국대 교수)=1월 1일 한국연구재단 핵융합단장에 선임.

▲김명자(간호 76-80 대구대 심리학 교수)=1월 20일 전국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협의회 제26대 회장에 선출.
▲김명진(조경 78-84 국립환경과학원 생태평가과장)=최근 임기 2년의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에 선임.

▲이원기(경영 79-83 KB자산운용 전 사장)=1월 21일 PCA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사장 선임.
▲권문성(건축79-83 성균관대 교수)=오는 8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제12회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에 선정.

▲이관영(화학79-83 고려대 교수)=지난 1월 1일 한국연구재단 화학화공소재단장에 선임.
▲박낙영(법학 80-86 아이스 텀투자 전 대표·한국개발리스 전기계획장)=1월 20일 한국토지신탁 대표이사에 취임.

▲강원택(지리81-85 숭실대 교수)=1월 28일 경희대에서 열린 한국정당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회장에 취임.
▲박대수(계산통계83-87 KT 사업협력팀장)=1월 19일 KT 대전

법인영업단장(상무) 승진.
▲송석두(영문 81-87 대전시 전 기획관리실장)=1월 26일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운영총괄국장에 임명.

▲김원호(대학원 81-87 한국외국어대 교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1월 25일 한국외대 국제대학원장에 선임.

▲김윤경(경제 84-88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1월 26일 대통령 직속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회대변인임명.

▲정승윤(공법87-92 부산대 교수)=1월 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선임.

▲기욱(AMP 40기 금호석유화학 사장)=1월 12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에 선임.
▲남인석(AIP 34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원장)=1월 25일 서울한국전력 본사서 한국중부발전 사장에 취임.

▲변준연(AIP 39기 한국전력 해외사업본부장)=1월 22일 한국전력 아랍에미리트 사업총괄부사장임명.

▲윤광림(ASP 10기 제주은행 전 은행장)=1월 14일 미래II저축은행 장겸 미래금융그룹 부회장에 선임.

< 14페이지에 계속>

모교소식

Residential Campus

관악에 첨단 거주형 캠퍼스가 들어선다

7개동에 2천500명 영재 수용
50억 기부자 7명에 1동씩 헌정

신축 거주형 캠퍼스(Residential Campus)를 존경하는 7인에게 헌정합니다!

지난 1983년 John Templeton 경의 기부로 세워진 옥스퍼드 대학의 Templeton College와 Thomas Dudley Cabot이 기부해 건설된 하버드 대학의 Cabot House 등은 거주형 캠퍼스(Residential Campus)로도 유명한 대학들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는 교육과 문화, 공동체 기능이 복합된 캠퍼스가 각각의 기능을 훌륭하게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모교 서울대에도 올 7월이면 42,500m²의 면적에 2천500명의 영재들이 우수한 학습 환경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리며 세계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최첨단 거주형 캠퍼스가 들어선다.

총 685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축 중인 거주형 캠퍼스는 모두 7개동(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운동장·공연장·독서실·스터디실·동아리실·헬스장 등을 갖추게 된다.

이곳에서 학습 및 생활지도,

운동장·공연장·독서실·스터디실·동아리실·헬스장
학습·생활지도, 강연, 체력단련, 주거·교육·문화기능



현재 건축 중인 거주형 캠퍼스 조감도

공연 등 주거·교육·문화의 복합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장무)은 올 6월까지 진행되는 모교 캠페인 'VI-

리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2010년까지 발전기금 3천억원 모금을 목표로 모교 캠페인 'VISION2025'를 추진해왔고, 2009년 9월 현재 2천500억원 기금을 달성해놓고 있다.



SION2025'의 대미를 성공적으로 장식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초일류 인재 육성, 대학 국제화, 글로벌 학문 육성, 사회 기여 확대, 사회정책 기능 강화, 학문 인프라 강화' 등의 핵심 모교 사업 용도로 50억 이상 출연한 기부자 7명을 선정해 신축 거주형 캠퍼스 1개 동씩을 헌정하는 헌정 캠페인을 펼친다.

한편, 이장무 총장은 지난 2006년 취임 후 서울대를 세계 10위권의 명문대학 반열에 올

←거주형 캠퍼스 세부 사진으로 내부 시설도 모두 최첨단 시설로 설계되고 있다.

<VISION2025 거주형 캠퍼스 헌정 캠페인 안내>

《헌정대상》

▶2010년 6월까지 핵심 모교사업에 50억 원 이상 출연한 기부자

《헌정내용》

▶기부자의 아호 등 기부자가 희망하는 명칭으로 기숙사 1개동에 '000 홀'로 명명(Ex 홍길동 홀)

▶해당 동 1층 로비에 기부자의 부조와 공적 기록을 설치

▶2010년 7월 캠퍼스 개관식과 함께 헌정식 거행
※ 본 헌정 캠페인은 초기에 종료될 수 있다.

< 13페이지에서 계속>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해구 동문 101세로 별세
원로 국악학자 만당(晩堂) 이해구 원로 동문(사진)이 지난 1월 30일 101세로 별세, 2월 2일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국악인장으로 영결식이 치러졌다. 국악을 학문으로 연구한 선구자로 꼽히는 이 동문은 1954년

한국 국악학회를 창설해 초대 회장을 지냈고 63년 모교 음대 최초로 국악과를 개설했다.

이 동문은 어려서부터 서양음악에 심취해 바이올린을 즐겨 연주, 경성제대 영문과 시절 '경성 오케스트라'를 조직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 졸업후 경성방송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면서 국악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 때 국악 프로그램 자료들이 주로 한국에 왔던 선교사 등 외국인의 관점에서 정리돼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연구에 나서게 됐다.

이후 1955년 첫 국악논문인 '양금신보 사조', 1957년 첫 논문집 '한국음악연구'를 발표했다. 모교 국악과 1기 졸업생인 이재숙(69·서울대 명예교수)씨는 "지금까지도 만당 선생이 만들어놓은 체계로 국악 이론이 전수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 동문은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외국 음악 학자들

에게 국악을 널리 알렸다. 국제 민족음악학회를 1981년 서울에 유치했고 아시아 태평양 민족음악학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구순이 넘어서도 저술에 힘을 쏟아 2005년 '한국음악이론' 개정판, 2007년 수필형식의 '만당 음악편력'도 발표했다. 건강이 악화한 최근까지도 '한국음악사' 개정작업을 해왔다.

그는 생전시 모 인터뷰에서 "시계가 움직이면 살았다, 정지하면 죽었다고 한다. 사람도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팔순이 넘어서도 공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1년 제 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됐다. 유족으로 부인 정기영씨와 3남 2녀가 있다. 특히 장남 창복씨는 시카고에서 안과의사로 잘 알려져 있다.

<약력>•1909년 1월10일 출생 •1928년 경성대학교 관현악단과 중앙악우회 관현악단 비올

라 연주 •1931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영문학과 졸업 •1945년 중앙방송국장 대리 •1953~1956년 국학대학 교수(영시강독) •1954년 한국 국악학회장 •1959년 서울대 음대 초대학장 •1965년 문화훈장 국민장 •1968년 민족문화예술개발연구위원회 음악분과위원장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1973년 예술원상 수상 •1974년 정년퇴직 •1974년 서울대 명예교수, 예술원 회원 •1991년 제1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 수상

<저서> •한국 음악연구1957 •한국악기도록 1962 •한국음악사 1967 •만당문채록 1970 •세종장헌대왕실록 제22 악보 해제 1973 •한국음악논총 1976 •국역 악학계범 1979~1980 •Essays on Korea Traditional Music 1981 •만당 논문채록 1985 •한국음악논집 1985 •井間譜의 井間・大綱 및 長短 1987

▶함종규(교육46~50 성일장학재단 이사장)=1월 14일 별세(84세)

▶박은희(작곡49 대한재보협전 사장)=1월 13일 별세(80세)

▶원주호(정치50~54 은행감독원 전 감사역)=1월 20일 별세(79세)

▶김정만(수의54~58 서울대공원 전 동물부장)=1월 21일 별세(76세)

▶남기몽(상학56~62 건설실업전 동경지점장)=1월 26일 별세(75세)

▶박경린(전자공학61~65 중앙의숙 이사장)=1월 21일 별세(67세)

▶張丞玟(상학66~70 해양수산부 전 장관)=1월 15일 별세(62세)

▶권종락(외교68~72 외교통상부 전 제1차관)=1월 28일 별세(61세)

▶이원성(전자공학77~81 삼성전자 부사장)=1월 26일 별세(51세)

지역 동창회 소식

남가주



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동창회를 향해 보여주신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동창회의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년 동창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36대 동창회를 이끌어갈 신임 김은종 회장님과 임원 및 회장단에 많은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한해도 즐겁고 신명나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며 뜻하시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영혜 드림

남가주 동창회

신임회장 김은종 동문 선출
2010년 신년총회 300여명 참여

남가주 총동창회의 최대 행사인 2010년 신·구회장 이취임식 및 정기 총회가 6일 노워크에 있는 매리엇 호텔에서 300여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 지난 한 해 동창회를 이끌어온 제영혜 회장이 신임 김은종 회장에게 바통을 넘겨주었다.

제 전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후회없이 열심히 뛰었고, 큰 나 큰 보람을 안게 됐다”며

감격스러워 했다.

김 신임회장은 “제 회장의 업적을 잘 이어받아 더욱 발전된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참가 동문 중 최연장자 오재인 동문(치대 33학번)과 최연소자 정은선 동문(서어서문 04학번)이 개회 선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두 동문의 나이 차는 무려 71년이나 되었다.

신임회장에 취임한 김은종 신

임회장과 함께 동문회를 이끌어갈 신임 임원단이 단상에 나와 인사하고 있다.

임회장은 제영혜 전임 회장에게 공로패 증정했다.

또한 모교 이장무 총장을 대신해 대외협력본부장 윤희원 교수(국어교육과)가 참석해 축하를 하고 친구 두 회장에게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총동창회 행사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시종 화기에애한 웃음꽃이 피었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관악 캠퍼스 세대(관악연대)들이 그 어느때보다 많이 참석해 더욱 풍성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다음은 제영혜 전임 회장의 인사말 중 일부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동문여러분, 2009

년 한해를 마감하고

회 땅 찬 2010년 울 맞이하여 서울

↑ 최연장자 오재인 동문(사진 오른쪽)과 최연소자 정은선 동문이 개회 선언을 한 뒤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① “흐흐흐..이게 웬 찬스...” 유홍 시간의 짝짓기 게임에서 동문들이 게임에 열중... 너무 심하게(?) 안으신다...^^

② “맛싸~ 돌리고-” 여성 동문들의 신나는 춤 경연이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는 게임이다. 앞줄 검은 옷을 입은 유성숙 동문(사대 수학교육 80)이 이 날 요염한(?) 몸놀림으로 최고상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③ “이 정도면 내가 우승이 아닐까...” 춤 멈추기 게임에서 최종 본선에 오른 5명의 후보들이 한 명씩 나와 춤대결을 벌이고 있다. 심사위원을 맡은 정원훈 동문의 앞에서 여성 동문이 아주 야릇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다.

④ “에라, 심사고 뭐고 나도...” 또 다른 여성 동문이 유연한 몸놀림으로 춤을 추면서 가까이 와 유혹(?)하자 심사위원도 이에 현혹된 듯 하다.



지역 동창회 소식

북가주·밴쿠버



북가주 동창회 임원들이 이사회에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회의한 뒤 한 장면 '찰칵' 했다.

북가주 동생의 장학기금마련 음악회 준비

8월말 신수정 동문 초청계획

북가주 총동문회(회장 홍성제)가 올 해 동문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중이다.

총동문회는 지난 1월 28일 2010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말 동문 신수정 피아니스트를 초청하기로 했다.

또한 북가주 음대 동문들이 출연하는 음악회를 열어 그

수익금을 모두 장학기금으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 날 이사회는 또 4월 말 동문들의 선행 스케줄을 잡았으며 손창순(공대69)·이정옥(가정대71) 두 이사를 선임이사로 선임했다.

이 이사회에는 홍성제·황만익(이사장)·정대현·정조웅·임승쾌·이장우·김기현·부영무·변은희·손창순 이사 등 10명이 참석했다.

신수정 동문은 특히 원로 동

문들에게는 기억에 새로울 것이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지 부산의 천막으로 만든 이화여고 임시 건물에서 처음으로 이화·경향 콩쿠르가 열렸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신 동문은 한동일·이덕주·이경숙 등과 함께 이 콩쿠르에 입상해 깜짝 놀라게 했다.

이후 교향 총복 청주에서 서울로 오던 1956년 당시 신문에 '천재 자매 상경'이라는 기사가 났다. 동생 수희씨도 어릴 적부터 천재 화가로 소문났던 터다.

1956년 13살의 신수정은 데뷔 콘서트를 모차르트 200번째 생일에 맞춰 1월27일 서울 풍문여고 강당에서 가졌다.

그 후 신 동문은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대 음대에 수석으로 입학해 수석을 졸업했다.

졸업 후 바로 빈 국립 아카데미에서 수학 중 국제 베토벤 콩쿠르에 입상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빈 국립아카데미 졸업과 함께 서울대 음대 교수로 부임한 그는 국내외에서 런던 필, NHK 교향악단, 뮌헨 체임버, 도쿄 필, 신일본 교향악단, 홍콩 필, 국향, 서울시향 등과 협연했다.

특히 루치에로 리치, 클라우스 헬비히, 토마스 브란디스, 정경화 정명화 등과 협연하며 1960~70년대에 화려한 음악의 꽃을 피웠다.

신 동문은 1970년대 다시 미국 피바디 음대에서 수학하며

연주 활동을 벌였다.

신 동문은 경원대 학장을 거쳐 2005년 서울대 음대 60년 사상 첫 여성 학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그동안 동아 콩쿠르 1위를 비롯, 스테파노브 콩쿠르, 독일 상공협회 콩쿠르에 입상한 바 있는 그는 뮌헨 콩쿠르, 일본 소노다 피아노 콩쿠르, 일본 국제 콩쿠르, 쾰른 음대 주최 국제 피아노 콩쿠르, UNISA 국제 피아노 콩쿠르, 일본 센다이 국제 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제4회 국민음악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대한민국 독관 문화훈장, 한국음악상(기악부분) 등을 수상했다.

왼쪽 하단 색동저고리 소녀는 신수정 동문이 1956년 13세로 데뷔 콘서트에서 모차르트 협주곡 제20번을 해군 교향악단과 협연했던 모습이다.



밴쿠버 동생의 신·구 임원 업무 인수인계

지난 1월 31일 신구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동창회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

이 날 이와 함께 올해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의견을 나누었다.

지난 18년간 성장해 온 밴쿠버 동창회는 이제 300여 명의 서부 캐나다 거주 동문들이 등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능동적으로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절반 이내의 수준으로 어떻게 더 활성화 할 수 있는가를 토론해 보았다. 또한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로한 대 선배님들이 건강상 문제로 동창회 모임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데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교통 편의 등을 조직화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금년에도 지난 10 여년 이상 계속 사업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동문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 확대와 더불어 본 지부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 그리고 한인으로서 캐나다 주류사회에 공헌한 비동문을 각각 선정 시상하는 "관악상" 의 위상도 보다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속 연구시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동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걷기대회, 골프대회, 한여름 가족 피크닉, 윈로 선배님들 위로의 밤 행사, www.snuavancouver.com 동창회 지부 웹사이트 활용증진, 세미나 및 동문 활동행사의 지원 등 다채로운 계속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제 이달 2월 중순 부터 시작되는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도 고국 건아들의 선전을 U

동문들 모두 한 마음으로 빌며, 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금년 한 해를 이끌고 갈 밴쿠버 동창회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 ▶회장=박하일(문리대 59)
- ▶부회장=이명규(농대 69)
- ▶총무=남궁 영(공대 77)
- ▶부총무=진성훈(농대 82)
- ▶재무=임홍렬(상대 83)
- ▶감사=조영제(사회대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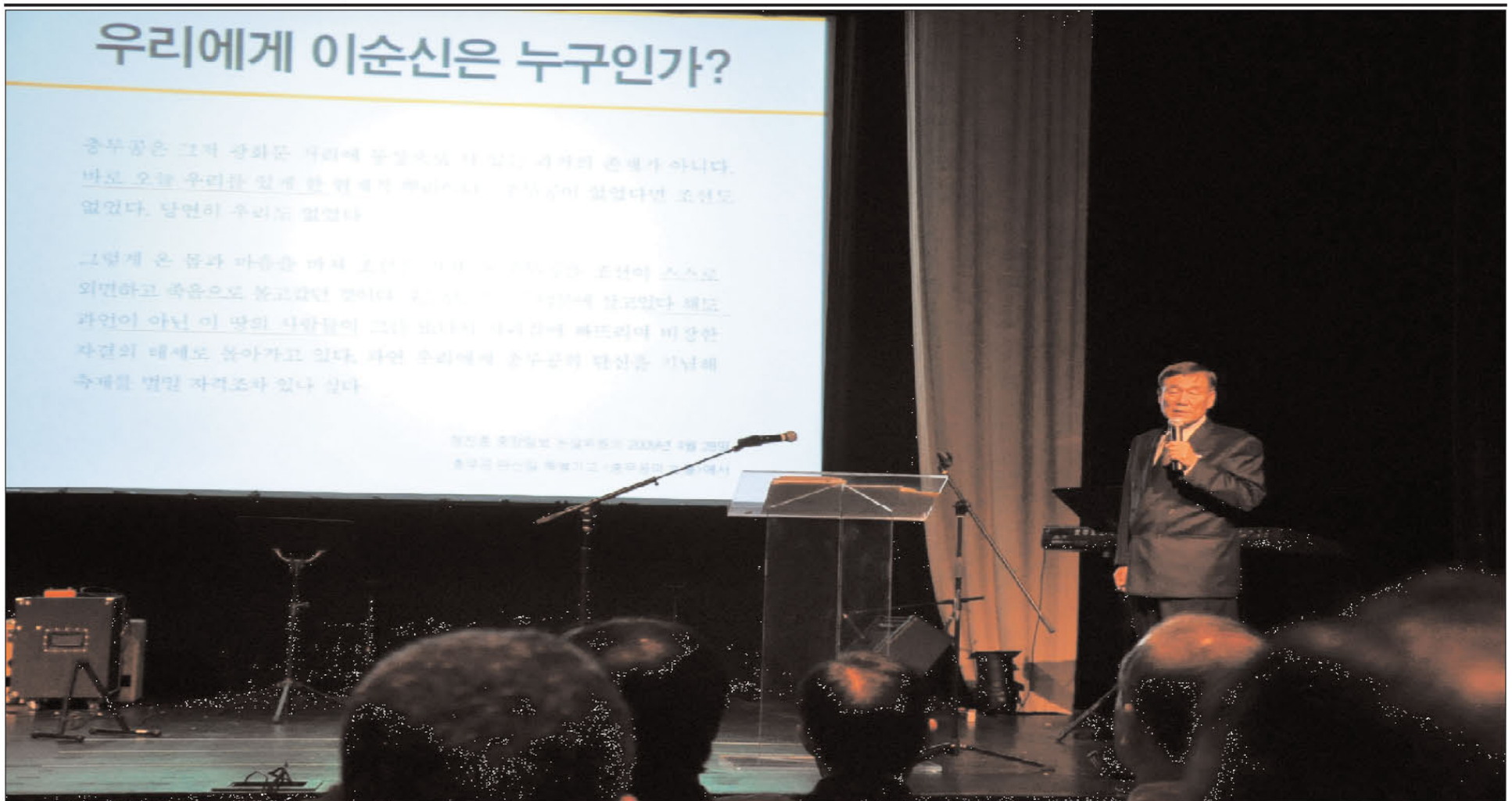
1997년도 제 1회 동창회 장학금 수상자인 황택구 동문(57 미대)의 자제 황유진 군이 지난 1월 23일 황택구 동문 편에 장학기금 1천달러를 동창회에 기탁해 왔다.

현재 미국의 애플사에서 산업 디자이너로 근무 중이다.

동창회의 장학금 수상자가 보은의 뜻으로 동창회에 장학금을 기탁한 일은 동창회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수여 행사에 상당히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동창회장 박하일>

지역 동창회 소식 필라델피아·시카고



필라델피아 동창회

충무공 이순신 강연회 개최

역사적인 새로운 사실 밝혀 고려대·중앙대 동문등 큰 호응

“이순신 장군의 충성의 대상은 임금이기보다는 민초(백성)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광화문에서 있는 동상처럼 우람한 체격의 당당한 무장이 아니라 차라리 문관에 가까운 풍모에 깊이를 모를 정도로 겸손함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강연에 나선 이내원 동문(사대 58학번)의 말이다.

필라델피아 동문회는 지난 1월 16일 토요일에 근교 갈보리비전 센터에서 이내원 동문을 수도 워싱턴에서 초청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동문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인간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남해안을 지키면서 의주로 피난 간 선조 임금의 지시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백성의 안위를 우선으로 삼아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것입니다”라고 해석했다.

“또 충무공은 시종 위례양에 시달리던 병약한 선비형이어서

서울 광화문의 그 분처럼 용맹스런 장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쟁에 임하면 우리의 전 군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며 앞장서서 독려하는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법치정신이 투철하여 군율을 굳게 지키고 도망병은 가차없이 목을 베는 엄한 분이었던다고도 한다.

“충무공의 발명품으로 알려진 거북선은 100여 년 전인 태종 때 이미 등장해 태종실록에 나타나 있습니다”라면서 또 다른 사실도 곁들여주었다.

“이순신 장군은 기존의 거북선에 화포를 장착한 뒤 실전에 투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보조 전투선으로서 2~3척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고 말했다.

필라델피아 동문회는 이 강연을 고려대와 중앙대 동창회에 연락하여 각 대학교와 교분의 정도 나누었다.

이 날 이 강연을 들은 모든 청중들은 평소에 듣지 못한 사실들을 들었으며 이것을 듣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더 인간적인 정과 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소수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

이내원 동문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강연회를 열고 있다. 이 동문은 이 날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 타 대학 동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았다.

다”는 청중들의 의견에 동문회는 다음 기회에 더 큰 장소에서 동포들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우리 1.5~2세들을 위한 영어 강연회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내원 동문은 수도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연구해왔고 여러 곳을 다니며 강연회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순신 장학금’을 제

정하여 매년 학생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 동문은 현재 전 미주 한국 학교 이사장 겸 역사교재 편찬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시카고 동창회

세종작문 현상공모 실시

에세이·시조, 워크샵·감상회도

시카고 ‘세종 문화회(회장 김호범, 상대 69입)’가 제5차 연례 ‘세종 작문 현상 공모’를 실시한다.

‘세종 문화회’는 미국 내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명으로 2004년 서울대 시카고 지역 동문들이 창설했다.

이 문화회는 그동안 한국의 전통 음악·문학·미술을 서구의 미디어로 표현하는 창작을 장려하며 수상 작품들의 전시회와 연주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의 작문 경시 에세이 부문에서는 한국의 민속 전설(The Green Frog, The Heavenly Maiden and the Woodcutter, The Mud Snail Bride, Shimchong, The Snake and the Boar, The Tiger and the Cloudburst 5개 중 선택)을 주제로 작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조 부문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시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 웹사이트에 안내



돼 있다. 이 작문 경시에는 미국 내 고교생 이하의 청소년들이면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마감 기일은 4월 30일이다.

한편 세종문화회는 최근 한국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으로부터 ‘영어로 쓰는 시조’ 교재개발 사업으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재정지원과 시카고 총영사관의 적극적 후원으로 미 중고교 영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로 시조 쓰는 법을 가르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든다. 이와 관련해 4월9일에 일리노이 주립대 영문학과

와 공동으로 영어교사를 위한 시조 쓰기 워크샵을 일리노이 주립대 캠퍼스에서 연다.

또한 10일 시카고 Harold Washington Public Library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시조 강좌를 갖고 시조 낭독 감상회를 Andrew Bae 화랑에서 갖는다.

미국 기성 시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는 시조를 미 청소년들에게 전파시켜 한국 교육 시조 문화를 미 사회에 알리고 주류 문화안에 정착하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세종문화회 웹 사이트는 www.sejongculturalsociety.org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다음은 지난해 세종 작문 경연대회 시조 부문 일등 수상자 Creasy Clauser (Crawfordsville, IN, Southmont High School, 12th grade, 사진)의 시다.

Untitled
A single sole was lost today, deep in the river Yalu,
Thrashing, twisting, torn to shreds with color quickly fading.
On the bridge a small boy laughs, holding out his empty shoe.

지역 동창회 소식

하틀랜드



하틀랜드 동창회 회원들이 배규영 동창회장 댁에 모여 올해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틀랜드 동창회

올해 'Resolution' 밝혀

하틀랜드 동창회에서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배규영 동창회장 댁에서 동창회원들이 새해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회원 개인들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다.

▶이재명(의 59) 은퇴를 하고 나니 할 일이 너무 많다. 예전에 개업의로 일할 때는 이것 저것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는 운동이나 음악감상 등 여러 가지 하고픈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새해 소원은 골프 300 야드 정도 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이웃을 위한 봉사, 가족을 위한 헌신 등을 잘 계획하여 행하고 싶다. 새해 첫 계획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여행하는 것이다.

▶전선옥(법 50) 특별한 것보다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새해 다짐이다. 새해에는 보다 뜻 깊은 일들을 찾아 하고 싶고 주변에 정리할 일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

▶배규영(상 61) 어떤 글을 보니 거창하게 Resolution 하는 사람보다 하나 하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인생을 산다고 했다. 새해에는 180파운드로 체중을 줄여보자는 것이 나의 다짐이다.

▶양승열(음 93) 지금까지는 바쁘게 일에 쫓기며 살았는데, 새해에는 시간관리를 잘 해서 보다 계획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싶다.

▶김준(문 71) 아내와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i-pod을 사달라고 했다. 새해에는 배규영 회장님께 i-pod 사용법을 배워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음악감상에 몰입해보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성악 레슨을 받아보고 싶다.

▶이상강(의 70) 새해에는 일 좀 덜하고 운동도 하고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김경숙(가 70) 새해에는 토마토를 길러보고 싶다. 또한 운동을 많이 하고 싶고, 2주 동안 아프리카 7개국을 여행할 계획이다.

▶이치현(약 77) 올해는 지회 결혼 25주년이 되는 해니만큼 서

로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여행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임중기(약 46) 지난 해는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살았으나 올해에는 무엇보다 건강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정공수 장로님 그림을 많이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 특히 자연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를 화폭 밖으로 표출해낸 반 고흐 작품을 많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배규영 동창회장(사 68) 2009년은 참으로 바쁜 한 해였다. 새해에도 예외없이 바쁜



휘

겠지만 특별히 계획하는 것은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심포니 전곡을 들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Random 으로 감상해 왔지만 새해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두 거장의 심포니에 빠져들고 싶다. 또 하나는 인터넷 웹(HTML)을 공부하고 싶다. 일석이조로, 계속적으로 두뇌를 자극하고 또 홈페이지 작성을 조금 더 멋지게 꾸미도록 연구해볼 계획이다.

▶임하진(의 79) 평생에 많은 것들을 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대개 다 해 봤지만 아직 2가지를 못했다. 하나는 불어 공부하고, 또 하나는 비행기 조종이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2가지를 꼭 해 볼 예정이다.

▶구명순 차기회장(간 66) 새해에는 골프를 조금 더 Consistent 하게 칠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다치지 않고 몸 건강하게 말이다. 이제 은퇴가 가까와 오는데 마지막까지 전공 분야에서도 끝까지 실력 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오명순(가 69) 지난 해는 참으로 바빴다. 새해에 학원을 운영하느라 예년과 다름없이 계속 분주하겠지만 아무튼 시간을 조금 더 내어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조금 더 베푸는 한 해로 삼겠다.

▶임소연(음 92) 지난 해는 리사이틀만 4번 하는 관계로 아주 바빴다. 새해에는 2월에 근무하는 학교에서 오페라 공연이 있는데 무사히 지도해서 멋진 공연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외 주위의 친구들, 교회에 더 봉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주현(미 92) 항상 1월은 Tax Business 하는 관계로 정신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우선 LA에서 실컷 놀면서 Energy 충전하고 싶다. 세금보고가 끝나는 4월부터는 성경 읽기를 시작해서 연말까지는 성경 전체를 2번 읽도록 목표를 정했다.

◀필라 편집장 김상심▶



이흥구 동문 외동 아들 14세로 공대 입학

이흥구 동문(UMKC수학과 교수, 수학 72)의 아들 Noah군이 홈스쿨링을 통해 14살에 공과대학에 입학했다. 필라델피아 동창회보 김상성 편집장의 인터뷰 글을 간추려 전제한다.

▶편집장=노아가 외아들이라 더 소중하겠네요. 어떻게 home schooling 생각을 하셨나요?

▶어머니=저희가 결혼하고 10년이 넘어 가진 아이라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계획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Prep Academy가 아이

가 학교갈 나이인 6살 때 생겼는데 4년차부터만 개설돼 일단 등록했는데 한 달만에 과정을 따라가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4년차 과정이 끝나고 다음 상위 과정이 7학년 과정이라 그곳에 보냈는데 또한 잘 따라갔습니다.

▶편집장=원래부터 재능을 타고난 것 같네요. 그런데 그 Home School은 어떤 곳이죠?

▶어머니=Overland Park에 있는 Christ Preparatory

School인데 크리스찬 교육자들이 주 구성원입니다. Donation과 주정부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월·수·금에 학교에 나가고 대학처럼 Cafeteria Style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Noah=I liked the system since there was freedom to choose anything I wanted.

▶편집장=그렇게 Acceleration 하게 되면 주위 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나요?

▶어머니=그래서 제가 Class에 같이 앉아 수업을 듣기도 했어요. 미국애들이 대다수로 영어도 완벽하지 못하고 키도 작아서요.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여러 Activity를 하면서 즐기기도 했죠.

▶Noah = We have 200 students as a total and any kind of sport teams like football, volleyball, baseball, even golf team! Cross country team especially is very exciting. When it happens, the whole families come to involve in it.

▶편집장=이렇게 가다간 남들 대학졸업 때 Ph.D 받겠네요?

▶아버지=이렇게 월반하게 된 건 Elementary과정을 4년

뛰어 그럽고 고교 과정은 다 마쳤습니다. 대학에서는 충실히 심도있게 다지는게 좋을 듯 합니다.

▶편집장=한국같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머니=맞아요. 여기는 제도가 Flexible해서 교과과정만 마치면 대학에 갈 수 있어요. 대학에서도 Home School 출신자를 선호하는데 그들이 더 입학성적도 높고 대학에서도 성취도가 높기 때문이죠. Home School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중입니다.

▶편집장=What do you want to do in future?

Noah=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DSP means technology for transferring sound or image through cell ph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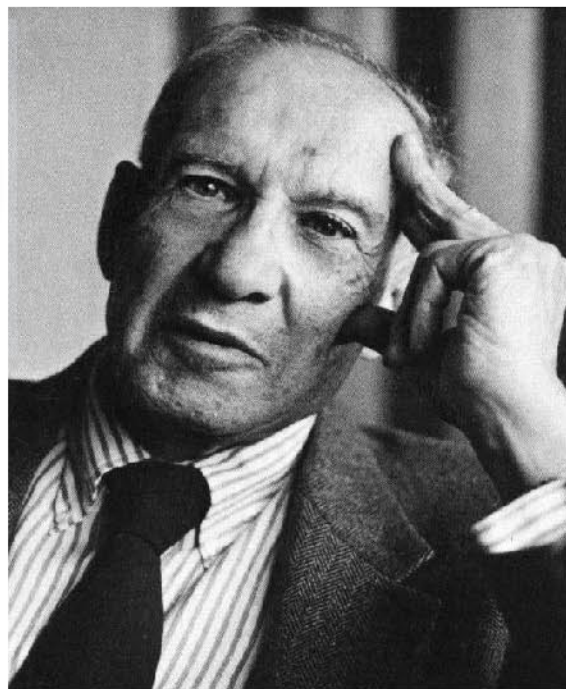
▶편집장=아버님은 Noah와 같이 학교에 나가시겠네요?

▶아버지=아들재미 보려고 같이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하나라. 장학금도 받게 돼 거의 공짜로 다니게 됐죠.

*Noah는 UMKC computer science & electrical engineering department에 입학 예정이다.

무명 길잡이의 시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95세에도 왕성한 집필 활동하는 피터 드러커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몇 살부터일까? 70세? 60세? 아니면 정년 퇴임한 후부터?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미 카터는 노인에 대해서 멋진 정의를 내렸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고.

맞는 말이다. 우리는 단지 나이를 먹어 가면서 늙는 것이 아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하고, 절망이 희망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카터가 진정으로 위대한 까닭은 그가 퇴임 후 나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을 ‘후회’가 아닌 ‘꿈’으로 채워 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결코 늙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현역’이다.

신체적·정신적 활동에서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할 때, 운 좋게 주변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 온 사람들의 수가 확 줄어들었음을 실감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자신을 무능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점점 노인이 되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몇 년이나 살아 왔느냐 하는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95세인 지금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며 정력적으로 살아간다.

그가 존경하는 작곡가 베르디는 81세에 유명한 오페라 ‘폴스타프’를 작곡해 무대에 올렸다.

중기 기관차를 발명한 제임스 와트는 64세에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80세가 넘어서도 기계 설계를 계속했다.

이들은 남아 있는 힘을 완전히 소진하고 더 이상 어떤 기력도 없이 쓰러질 때까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대 가슴에서 뛰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멈출 때까지는 그 무엇이든 “늦지 않다”고 말한 롱펠로우의 말을 기억하자.

늙는다는 것은 연령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의 문제다.

탱탱한 근육만이 젊음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아니다.

정신이 노쇠해 있으면 그는 이미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들은 삶을 항상 꿈으로 가득 채워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세속적인 지위와 자리가 부여하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공헌과 기여를 통해 자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의 뒷 모습에서는 항상 향기와 멋스러움이 배어 나온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소풍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들은 젊은이로 소풍을 즐겁게 보냈다고 묘비에 새기지 않을까?

의심보다는 호기심을, 절망보다는 희망을, 불평불만보다는 칭찬과 감사, 후회보다는 꿈을 그리며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임들이 꼭 되시리라 믿는다.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 감동하고 슬픈 일에는 서로 슬퍼하고 좋은 일은 같이 좋아해 주는 친구...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다.

힘 들 때 눈을 바라봐 주고 해답해 주는 친구가 있어 “난 행복해”라고들 한다.

그래도 우린 그리워할 수 있는 행복한 친구가 있기에 하루 하루 고운 향기 날리며 오늘도 명상으로 그려 본다.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

Letters to the Editor

조봉완 박사 ‘2차대전 후 한반도’ 논문에 감사

저는 S.M. Kahng이고 남편이 세상 뜬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서울대 상대 출신이어서 계속 보내주시는 회보를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그간 구독료를 보내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해서 보내겠습니다.

지난 호에 게재된 글(2009년 10월호 조봉완 박사 집필)의 여운형 씨 따님과 이화 동기입니다. 기사 반가웠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으시려는 분이 아직 계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

동창회보 10월호에 게재된 조봉완 박사님의 논문(Cold War Sets in Korea)을 잘 읽었습니다. 동창아닌 분들과 나누어 읽으려고 합니다. 그 원고 전자 파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영혜 드림

##

앞 못보는 동문의 남미 기행문은 감동적

Dear sunbae nim:

Our regional alumni association looks so good on the paper. Thank you putting our association's activity on the paper. There are a lot of good readings including Hahn Chang Sub sunbae nim's writing. The blind man's journey to S. America made me nearly tearing!

Thank you.

I know how hard it is to maintain a good journal. You are the life-line of SNUA in USA. We thank you!

S. Yoon,
President of New England Association

##

모스크바에서 김유환 동문을 찾음

안녕하세요?

이곳은 모스크바입니다. 저의 한국 이름은 문옥희입니다. 1974년에 취업차 독일에 와서 독일에 뿌리를 내리게 된 한국계 독일인이 라고 해야 되겠네요.

4년 전부터 이곳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으나 머지 않아 독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찾고자 합니다. 이 분의 성함은 김유환, 1962년 서울대 사범대학 지리과를 졸업

했습니다. 졸업전엔 운영위원장을 맡아 하신 분이요 저는 이 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찾아 뵈려고 합니다. 건재하시다면 칠순이 넘으셨을텐데. 작년에 서울의 동문에 알아보니, 하와이에서 2005년까지 사셨고 2005년에 미국 본토로 이사를 가신 후엔 소식을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해서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됐습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오. 이 분을 꼭 찾고 싶습니다.

저의 E-mail 주소는 kesun-moon@hanmail.net 입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스크바에서 문옥희 올림.

##

새해에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름은 김 유환. 1962년경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도 사셨다는 말도 있는데...찾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Soonja Hecht from LA

##

이장무 총장의 ‘노벨상 프로젝트’

I am deeply disappointed with the article about Mr. Rhee's accelerating "Nobel Prize Project" in the SNUA News in the USA. Nobel prize is a result of what one has done for the humanity, but it should not be the object or goal of every effort. If SNU heads such direction, SNU and the country have very little hope for getting onto the world stage, but compete and fight each other to be higher than his/her peers as been doing as seen Korean History. Mr. Rhee should have a higher vision and dream for Korea.

Kim Dae Jung had tried to get one, and got one by using all Korean ways to include \$(?). I despise it, and feel a strong sense of shamefulness.

Please, close down the institutional effort to Nobel Prize. I have not found such backward countries trying to grab Nobel Prizes like wrestlers doing in the ring.

SNU graduates may be smart, but need to have a clear vision for the nation, and to learn how to do team work before thinking about Nobel Prize.

SNUA Member:
ks.1295@gmail.com

우리가 꿈을 대신하고, 절망이 희망을 대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동창회비·우원금·광고비 납부 현황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2월 20일까지 미주 동창회 10대 회장단(시카고) 본부의 영수 기록임

동창회비 2009/2010 회계년도

Alaska 윤제중 (농대 55)	김석홍 (법대 59) 김선기 (법대 59) 김수백 (치대 49) 김순길 (법대 54) 김승현 (의대 75) 김영기 (의대 54) 김영택 (법대 58) 김영배 (미대) 김영석(문리대54) 김영옥(간호대 69) 김영준(수의대64) 김영환 (법대54) 김영희(생활대69) 김용채 () 김원경 (약대59) 김유갑 (약대51) 김은희 () 김익창 (의대49) 김일영 (의대65) 김재무 (상대58) 김지복 (사대55) 김정민 (공대66) 김정애(간호대69) 김정화 (미대63) 김종일 (상대) 김종표 (법대58) 김준일 (공대62) 김지익 (의대45) 김진호 (약대64) 김창무 (음대50) 김태웅 (의대57) 김태윤 (법대53) 김현호 (문리대59) 김 훈 (경영대74) 김희재 (사대66) 나두섭 (의대66) 남장우 (사대56) 노명호 (공대61) 노상규 (공대60) 노제민 () 문병하 (법대51) 문인일 (공대51) 민병곤 () 민병환 (약대68) 민영기 (치대61) 박 현 (상대68) 박정화(문리대46) 박국종 (법대57) 박동훈 ()	박성민 (의대58) 박영옥 (사대55) 박우성 (상대77) 박원준 (공대53) 박의순 (상대53) 박임하 (치대56) 박제인 (약대60) 박종성 (법대 53) 박종수(수의대58) 박종식 (의대48) 박진득 (농대67) 박찬호(자연대81) 박창선 (공대55) 박취서 (약대60) 박태호 (치대66) 박형철 (사대72) 방명진 (공대73) 배효식 () 백성용 (사대52) 백옥자 (음대 71) 부영무 (치대 70) 서승열 (공대59) 서치원 (공대69) 선우원근(공대66) 성락호 (치대63) 손남수 (미대60) 손창순 (공대 69) 손학식 (공대61) 송은섭 (치대69) 송준섭 (농대65) 송원표(수의대73) 신광재 (공대73) 신대식 (상대60) 신동국(수의대76) 신동희 (공대 78) 신영규 (의대57) 신영수 (상대70) 신용규(문리대61) 신우천 (치대67) 신정수(간호대54) 신정연 (미대61) 신희정 (미대73) 안병일 (의대63) 안현중 (음대56) 양광주(문리대원58) 양승문 (공대65) 양은석 (음대70) 양창효 (상대54) 양태준 (상대56)	엄동해 (농대74) 오명주(간호대77) 오양숙(간호대60) 오찬수 (약대57) 우옥자(간호대60) 원미량 (미대65) 유석홍 (상대61) 유의영(문리대56) 유재환 (상대67) 유진형 (상대47) 유창호 (약대74) 유현순(간호대69) 윤석철 (상대60) 윤용길 (공대55) 윤창희 (상대83) 윤흥기 (의대58) 윤희성 (치대65) 이 선 (의대42) 이강원(인문대76) 이정수(수의대73) 이근철 (상대56) 이근호 (공대46) 이기재 (사대52) 이기준 (법대54) 이길자 (음대57) 이난경 (음대66) 이동섭 (사대36) 이명규 (미대73) 이명희(간호대67) 이방기 (농대 59) 이명무 (치대70) 이상문 (의대52) 이 선 (의대 42) 이성용 (음대58) 이승훈 (상대74) 이양구 (상대57) 이영송 (치대63) 이영식 (농대58) 이영신(간호대77) 이우근 (음대46) 이원택 (의대 65) 이의덕(신문대학원 70) 이은희 (의대48) 이재권 (법대56) 이재룡 (공대71) 이정열(간호대68) 이정옥(생활대71) 이종걸 (상대53)	이종묘(간호대69) 이준식 (의대61) 이준호 (상대65) 이중열 (공대69) 이제진(문리대) 이필권 (보대원65) 이혜영 (공대56) 이혜란 (미대) 이홍표 (의대58) 이화숙(간호대67) 임동호 (약대55) 임승채(문리대66) 임용오 (의대57) 임정란 (음대76) 임진한 (치대68) 임춘수 (의대57) 임화식 (치대 59) 임희영 (치대69) 장 준 (인문대85) 장경구 (미대67) 장기화 (치대 57) 장기창 (공대56) 장동석(문리대66) 장재환 (의대 61) 장진성 (약대66) 전낙관 (사대60) 전병권 (공대54) 전성대 (사대 60) 전호선(수의대67) 전화자 (음대60) 전희택 (의대58) 정원훈 (상대 38) 정 황 (공대64) 정규남 (공대52) 정동구 (공대57) 정동석 (공대57) 정두호 (공대64) 정복근 (사대69) 정수만 (의대66) 정원훈 (상대38) 정인덕(보대원64) 정인환 (법대54) 정재형 (약대55) 정진수 (공대56) 정창희 (법대54) 정태무 (사대44) 정현진(간호대68) 제영혜(생활대71) 조동준 (의대 57)	조성윤 (법대 46) 조상하 (치대64) 조재길 (사대61) 조종승 (공대45) 조대목 (사대60) 조태준(문리대59) 주수봉 (공대67) 진희섭(문리대50) 차기민 (공대85) 채희원 () 최경복(간호대69) 최정자 (약대63) 최덕순(간호대59) 최복영 (사대56) 최승훈 (상대53) 최영순(간호대69) 최왕옥 (공대69) 최용환 (공대57) 최인용(문리대65) 최태근 (법대48) 최홍수(자연대87) 탁혜숙 (음대67) 하기환 (공대66) 하상원(대학원90) 한종철 (치대62) 한태호(인문대 75) 허영진(문리대61) 홍원영 (사대45) 홍원익 (공대68) 황동하 (의대65) 황만익 (사대59) 황석우 (의대53) 황정식 (사대54)	박창익 (농대 64) 안창현 (의대55) 양찬기 (의대57) 임무평(문리대60) 오석일 (의대64) 윤홍철 (의대56) 이중오 (의대58) 전웅상 (공대46) 정구영 (의대50) 한기빈 (공대52) 한성수 (의대54) 한용현 (의대44) 황현상 (의대55)	Georgia 계광무 (공대63) 김영서 (상대54) 김용건(문리대48) 김종구(수의대73) 문종현 () 박천기 (법대56) 안승택 (상대51) 오경호 (농대60) 임수암 (공대62) 임한웅 (공대60) 정경근 (농대59) 정인태 (의대58)	Hawaii 림양수 (사대62) 박장부 (의대61) 유재호(문리대57) 윤상철 (약대47)	Illinois 강영국(수의대67) 강창만 (의대58) 계훈택 (의대55) 고병철 (법대55) 곽영로(수의대72) 구경희 (의대59) 권호연(문리대57) 김갑중 (의대57) 김광철 (사대47) 김길중 (의대59) 김사직 (상대59) 김선철 (의대58) 김영호 (의대71)	김용성 (상대54) 김용우 (공대58) 김용주 (공대73) 김윤범 (의대54) 김일훈 (의대51) 김재환 (사대72) 김정주(문리대60) 김현주(문리대61) 노영일 (의대62) 문병훈 (사대47) 문탁영(문리대55) 박 숙 (의대64) 박영규 (농대57) 박인숙 (미대69) 반용균 (의대53) 배영섭 (의대54) 서상현 (의대65) 소진문 (치대58) 송재현 (의대46) 신석균(문리대54) 안은식(문리대55) 양승표(문리대57) 양홍미 (약대63) 오기창 (법대50) 오명자(간호대60) 윤효정 (사대87) 이광선 (의대59) 이덕수(문리대58) 이동근 (공대75) 이명희 (상대52) 이소희 (의대61) 이승자 (사대60) 이승훈 (공대 66) 이승훈 (공대 66) 이영우 (문리대 66) 이용락 (공대48) 이윤모 (농대57) 이정일 (농대57) 이진주(문리대55) 이춘우 (치대54) 임이섭 (미대54) 임현재 (의대59) 장기남(문리대62) 장시경 (약대58) 장운일 (공대60) 장은숙(문리대53) 전현일 (농대62) 정 호 (공대62) 정광훈 (공대60)
------------------------------	---	---	---	---	---	--	--	---	--	---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서

동창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 회계년도

2009. 7. 1.- 2010. 6. 30.

☐ \$75

2010. 7. 1.- 2011. 6. 30.

☐ \$75

관의 후원금

\$200	\$200+	\$500	\$1,000
☐	☐	☐	☐

종신 여사비	모교발전기금 [백만원기금]	지부 분담금
☐ \$3,000	☐	☐

성명:(한글)		작성일: 년 월 일	
(영문)			
단과대:	대학원:	학과:	입학 년도:
현주소:			
전주소:			
전화/집:	Cell:	E-mail:	
* 지불방법 (Check or Credit Card)			
Amount: \$		Card Holder Name: _____	
☐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Card: Visa ☐ Master Card ☐	
Send to: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Card No.: _____ Security Code: _____ Exp. Date: _____	
		Signature: _____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 현황

기타 후원회비 및 기금 납부 동향

관악 후원금

Arkansas

윤제중(농대 55)
1,000

Arizona

박양제(약대48)
지영환(의대59)

California

권대원(경대원59)
권영조(의대57)
김낙구(상대67)
김동산(법대59)
김동석(음대64)
김병연(공대68)
김영석(문리대54)
김은중(상대59)
김종표(법대58)
나정자(간호대70)
박국중(법대57)
박임하(치대56)
염동해(농대74)
원미량(미대65)
유의영(문리대56)
유재환(상대67)
유창호(약대74)
이선(의대42)
2,000

이병무(치대70)
이병준(상대55)
이승훈(상대74)
이화숙(간호대67)
임낙균(약대64)
임동호(약대55)
임용오(의대57)
임춘수(의대57)
장준(인문대85)
장진성(약대66)
전호선(수의대67)
전희택(의대58)

정원훈(상대38)
정창희(법대54)
조재길(사대61)
최용원(공대57)
현원영(사대45)
황만익(사대59)

Connecticut

김기훈(상대52)
라찬국(의대58)

Delaware

배성호(의대65)

Florida

전웅상(공대46)
정구영(의대50)

Georgia

김용건(문리대48)
문종현()
주중광(약대60)
허지영(문리대66)

Hawaii

김창원(공대49)

Illinois

강창란(의대58)
구경희(의대59)
김길중(의대59)
김영호(의대71)
김윤범(의대54)
김윤태(의대63)
김재환(사대72)
김정주(문리대60)
노영일(의대62)
문병훈(사대47)
박영규(농대57)
반용균(의대53)
서상현(의대65)
송원희(미대60)

양홍미(약대63)
오기창(법대50)
윤효정(사대87)
이광선(의대59)
이승자(사대60)
이영우(문리대66)
이용락(공대48)
이윤모(농대57)
임현제(의대59)
장기남(문리대62)
전현일(농대62)
정병욱(의대53)
정승규(공대60)
조대현(공대57)
조중행(의대63)
진관보(의대72)
최희수(문리대67)
한재은(의대59)

Indiana

김연화(음대68)
김태기(의대62)

Massachusetts

김제호(상대56)
이희규(공대69)

Maryland

강길중(약대69)
권철수(의대68)
김종호(약대68)
김창호(법대56)
오인환(문리대63)
이태영(법대60)
이형열(법대57)
전경철(공대55)

Michigan

오동환(의대65)
차대양(공대55)

Minnesota

김태환(의대58)
황규현(의대56)

New Jersey

권문웅(미대61)
기도석(공대67)
김봉희(공대69)
김연석(상대54)
김영일(약대58)
김자익(의대69)
박정원(미대66)
박승원(공대50)
신정윤(공대60)
윤갑석(공대53)
윤현남()
이경림(상대64)
이문희(문리대54)
정준영(문리대67)
조정현(수의대58)
최희웅(문리대61)
허선행(의대58)
홍사만(문리대61)

Nevada

김용재(의대60)

New York

권영국(상대60)
권영대(공대69)
김명승(상대65)
김병숙(보대원64)
김승호(공대71)
김영배(공대78)
김용연(문리대63)
김용학(법대70)
김종출(사대51)
김창수(약대64)
박준희(인문대86)
상기호(약대57)
이근수(상대64)
이준행(공대48)
최구진(약대54)
최수용(상대55)
최한용(농대58)
최형무(법대69)

Ohio

김윤성(의대63)
최인갑(공대57)

Oklahoma

김경숙(생활대70)
이상강(의대70)

Oregon

김상준(상대67)

Pennsylvania

김국간(치대64)
김주진(법대54)
서중민(공대64)
손재옥(가정대77)
이지훈(미대)
정정수(의대56)
현재원(공대60)

Texas

김정훈(공대46)
맹인성(공대50)
조시호(문리대59)
황의관(사대76)

Utah

김성완(문리대59)
425

Virginia

김기봉(공대63)
박용길(약대56)
박윤수(문리대48)
박평일(농대69)
이규섭(상대68)
이내원(사대58)
이연구(미대60)
이영목(공대59)
정원자(농대62)

Washington

김성열(치대61)

Wisconsin

김영화(문리대65)
이영균(의대61)

광고비

California

강동순(법대59)
김경무(공대69)
김광철(음대59)
김원철(농대)
김원탁(공대65)
김재영(농대62)
김종표(법대58)
박준창(인문대79)
서동영(사대)
손학식(공대61)
신대식(상대60)
신혜원(사대81)
원영배(미대74)
윤종원(환경대학원85)
이경희(문리대57)
이근철(상대56)
이명일(약대72)
이춘배(사대60)
이형교(교대원66)
임봉기()
장준(인문대85)
정복근(사대69)
정지선(상대58)
조홍준(상대65)
최준호(치대58)

Illinois

김영호(의대71)
김재환(사대72)
심상구(상대63)
이재희(상대63)
이춘우(치대54)

Maryland

이준영(치대74)

New Jersey

김세환(공대65)
김영희(법대80)
오영식(법대72)
이경림(상대64)
최영태(문리대67)

New York

김광호(문리대62)
김명승(상대65)
김영배(공대78)
김용배(인문대77)
김용학(법대70)
김창수(약대64)
윤병하(농대80)
이근수(상대64)
조대영(공대61)
최형무(법대69)
한영수(의대61)

Oregon

김상준(상대67)

Pennsylvania

김국간(치대64)
손재옥(생활과대)
허창기(약대67)

Texas

이윤성(수의대81)
조시호(문리대59)

Virginia

박상근(법대75)
이규섭(상대68)

Washington

김성열(치대61)
유성열(공대72)

지부분담금

Ontario동창회

300

Minnesota동창회

800

패트리샤 강 60

Chicago동창회

1,200

종신이사회비

California

조용원(문리대66)
1,500

특별후원금

하트랜드지부

400

Illinois

Chicago Golden Club 1,000

시카고동창회 1,200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2,000.00

KOREA

임광수 회장 3,000.00

서울대 총장실 10,000.00

###

서울대 고국 동창회 및
서울대 미주 동창회 보조
지역 동창회 분담금 책정액

서울대 미주 동창회 지부 동창 회장님

서울대 본국 동창회 및 미주 동창회 보조 지부별 분담금을 아래와 같이 책정 했습니다.

지부별 분담금은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4대 오민석 회장께서 본국 서울대 총 동창회와의 유대를 강화 하고, 본국 동창회의 발전에 재미 동창들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제안하여 제8차 평의원 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미주 동창회 보조 지부별 분담금은 재미 동창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여 동창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도록 평의원에서 가결, 현재까지 실행되어 지난 수년 동안 지부 동창회에서는 책정된 금액을 본국 동창회와 재미 동창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8차 평의원회의에서 결의한 분담금 액수의 책정에 관해 그 후 제 17 차 평의원 회의에서는 지역 동창회 부담금의 책정액을 미주 동창회 회장단에 일임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10대 회장단에서는 다음 표와 같이 분담금을 책정했음을 보도하며 각 지역 동창회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담금 보내실 곳: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번호	지역동창회	고국 동창회 보조 분담금 (2009~ 2010년)	미주동창회 보조 분담금 (2009~ 2010년)
1	남가주	\$2,000	\$1,000
2	뉴욕	\$2,000	\$1,000
3	시카고	\$1,200	\$1,200
4	워싱턴DC	\$1,000	\$500
5	필라델피아	\$1,000	\$500
6	뉴잉글랜드	\$1,000	\$500
7	북가주 (SF)	\$800	\$400
8	샌디아고	\$350	\$200
9	휴스턴	\$350	\$200
10	델러스	\$350	\$200
11	플로리다		
12	하틀랜드	\$400	\$200
13	조지아	\$400	\$200
14	워싱턴주	\$400	\$200
15	오하이오	\$200	\$100
16	오레곤	\$200	\$100
17	미네소타	\$400	\$200
18	하와이	\$200	\$100
19	유타	\$200	\$100
20	캐롤라이나	\$100	\$100
21	로키마운틴	\$200	\$100
22	애리조나	\$200	\$100
23	앨라스카	-	-
24	온타리오	\$300	\$200
25	밴쿠버	\$200	\$100
26	앨버타		
	합계	\$13,450	\$7,500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우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 Corp

윤홍원 (사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 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Ace Business Services, Inc.

조만연(상대 58) (818) 994-7365
14617 Victory Blvd., #2 Van Nuys CA 91411

한인헤드럴 크레딧유니온

이영일(문리대 53) (213) 368-9000
3700 Wilshire Blvd., #750 Los Angeles CA 90010

Mirae Bank

박광순(상대 63) (213) 427-7951
3255 Wilshire Blvd., #1100 L.A. CA 90010

리테일러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909) 96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 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리테일러/리퀘스토아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 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리테일러/식품점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ett St. Anaheim CA 92801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차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8@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무역/전자제품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 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현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철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중개업

럭키부동산 관리회사
김희재(사대 66) (213) 736-5872
3200 Wilshire Blvd., #1507 Los Angeles CA 90010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운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촌배 교육상담센터

이촌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상담/교육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1-6
Moreno Valley, CA 92553

서비스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진(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서비스/Pest Control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동물병원

Valley Lyons Pet Hosp.
권태상(수의대 73) (661) 254-6680
24882 Apple St Santa Clara CA 91321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74)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송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 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숙박업/호텔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하드웨어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엔지니어링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종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웅(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문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종규 치과그룹

* 권종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Village Pharmacy

박제인(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명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 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os Angeles CA 90010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민권 치과
김민권(치대 72) ◦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오(치대 74) ◦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권중건 교정 치과
권중건(치대 65) ◦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의료/내과/전문의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정수만(의대 66) ◦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효(의대 65) ◦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의료/이비인후과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대건(농대 66) ◦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im, M.D.
임용호(의대 57) ◦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음대 56) ◦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의료/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dino CA 92404

의료/방사선과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재생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전기전등)
정미현(상대 63) ◦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제조업/건강과 자연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종교/교회/사찰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종교/교회 지위자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컨설팅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컴퓨터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한방의원/한약

Life Acupuncture Clinic
김병삼(공대 52) ◦ (323) 581-0909
7024 Seville Ave. #A Huntington Park CA 90255

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샌디에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의대 78) (858) 525-3222
4228 Convoay St. San Diego CA 92111

수익사 / 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 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간에 설립하여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실성과 많은 초혼자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 자녀 특별 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451-0240 / (510) 224-0780
2910 Telegraph Avenue, Sui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익사 / 동물병원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의/치과

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한약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D. C.-MD-VA

워싱턴 DC 지역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동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수의사 /동물병원

Elpaw Veterinary Clinic
한익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엔지니어링/항공

Drivetechn,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여행업

해보라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Website: www.hanstravel.com

요식업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내과/전문의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tiz Blvd. Woodbridge VA 22191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939-2811
711 W. 40 St. Rounde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의료/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rwyn Heights, MD
20740

FL

플로리다

리테일러/주업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리테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학원/온라인

N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변호사/법률사무소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강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중개업

로알 부동산
염무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강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n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상당/지정설계

셀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내과/전문의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의료/외과

Suh Sang Hun, MDPC
서상현(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형(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의료/치과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학원/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85

MA

뉴잉글랜드

부동산/중개업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수의사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의료/내과/전문의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내과/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8

의료/방사선과(암치료)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8-3 Ridgefield NJ 07657

건축/설계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New York NJ 07093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 New York NY 10016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금융/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 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무역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vershine Mt. Corp. (의류)
강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무역/종합상사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변호사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 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8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a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부동산/중개업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용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덕(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물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8

상당/재정설계

송기뢰 기술상당
송기뢰(행대원 62)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서비스/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 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급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 238-09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클리너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환(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서비스/잠금장치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rysler Building Arcade NY 10174

수의사/동물병원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스포츠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우(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요식업

Cheong Hae Restaurant
오지주(농대 67) (718) 460-0500
160-20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유통/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운송/유통/통관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원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Linkwell Corp. (도매)
유우영(공대 66) (845) 624-7460
55 Old Turnpike Rd., #208 Nanuet NY 10954

Young One Fashion (의류도매)
원영일(공대 58) (212) 685-4850
1201 Broadway New York NY 10001

의료/내과/전문의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9차 평의원회

장소: Marriott Resort
Lincolnshire, IL
Tel: (847) 634-0100
날자: 6월 11, 12, 13일, 2010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민병덕 내과
민병덕(의대 53) (718) 507-1888
77-08 Broadway Elmhurst NY 11373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 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Young S. Hahn, M.D.
한영수(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옥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웅(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의료/외과

Stan S. Choi, M.D.
최승중(의대 81) (908) 78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익 치과
이종익(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8-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교회

든든한 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학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본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8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OH

오하이오

상담/생활설계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익사 /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흥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내과/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 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190호 2010년 2월

OK

하틀랜드

의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 (405) 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 (918) 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401

OR

오레곤

공인회계사

김상순 공인회계사
김상순(상대 67) (503) 646-2868
10700 SW Beaverton-Hillside Hwy, #21
Beaverton OR 97005

교회

*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 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건축/시공 설계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공인 회계사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보험/재정 설계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 (215) 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 (267) 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uite 150 Horsham PA

리테일러/잡화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비영리법인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 (215) 635-0661
900 Valley Road, #D-202 Melrose Park PA 19027

수의사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5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 주기목(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
*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강영배(수의 59) ◦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sdowne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민(수의 69) ◦ (215) 635-2700
8023 Old York Road Elkins Park PA 19027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호(수의 66) ◦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내과/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욱 정형외과
문대욱(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 (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치과

오진석 치과
오진석(치대 56) (215) 887-6718
1883 London Rd. Abington PA 19001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6725 Castor Ave. Philadelphia PA 19149

TX

휴스턴

Farmers Insurance
곽웅길(문리 59) (915) 227-8317
1240 Blalock #120 Houston TX 77055

수의사 /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300
Katy TX 77494

Westhollow Animal Hospital
유소양(수의 61) (281) 531-9095
13664-A Westheimer Houston TX 77077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선박 겸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엔지니어링/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 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엔지니어링/원유개발 컨설팅
Lar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ane Houston TX 77082

의료/내과/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uite 260 Houston TX 77076

장의사

한국 장의사

조시호 (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801) 263-8866
292 East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 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 373-2858
PO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253) 851-1658
1505 Crescent Lake Dr. N.W.
Gig Harbor WA 98332

의료/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 254-5900
217 SE 136th Ave., Suite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 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 (425) 228-7446
947 Powel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워스컨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 (608) 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동문 외보 업소록 광고 문익는
전화 (224) 548-2148로

미주동창회 임원단

회장단

역대 회장 :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흥조(치) 이영목(공)

명예회장 : 이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교문 : 이준형(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이병준(상) 방은호(약) 윤정옥(약)
이경림(상) 서동영(사) 김대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진금섭(약) 이용락(공) 서종민(공)
한재은(의) 신응남(농) 김지영(사)

제10대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속(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 정 호(공) 장기남(문)
최순용(문)
감 사 :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 및 위원

발행인 : 송순영(문)
주필 : 이윤모(농)

편집위원 : 고병철(법)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 호(공)

편집장 : 이기준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백 순(DC) 오광남(BC) 오기창(CH)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LA) 임승패(SF) 정홍택(PA)
한창섭(NY)

각 지부 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제영혜(가정 71입) 714-809-4481 yvonnelee52@msn.com
	차기회장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차기회장	임승패(문리 66입) 510-381-1054 sk0425@hotmail.com
샌디에이고	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차기회장	
뉴욕	회장	한경수(문리 57입) 516-742-8483 jsh1206@aol.com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윤경익(공대 57입) (703) 542-7212 Keyoon96@yahoo.com
	차기회장	정상목(약대83입) 240-346-1043 dreamwork2001@hotmail.com
시카고	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kiminc@aol.com
	차기회장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필라델피아	회장	손재옥(가정77입) 267-736-2992 jhaah@timhaahs.com
	차기회장	조 화연 (음대 64입) 610-490-5335 robertwc@juno.com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댈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차기회장	이석호(온대 78입) 972-475-1184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뉴잉글랜드	회장	윤상래(수의 62입) 978-343-3049 yoonsville@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206-949-787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최인갑(공대 57입) 614-436-5780 jchoi613@gmail.com
	차기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하와이	회장	이상철(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하트랜드	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차기회장	
플로리다	회장	전일수(상대 50입) 305-606-1982 eugenechun@hotmail.com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utah.edu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510-655-3239 gideon@80square.com
	차기회장	정량수(의대 60입) 828-442-8711 drchung3@yahoo.com
로키마운틴스	회장	전남인(사대 입) 719-592-0037 jhonjeun@hot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고광선(공대 57입) 425-488-6326 ncyangkoh@gmail.com
	차기회장	오덕경(의대 58입) jjindori@cox.net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입)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김진영(공대 72입) 503-686-038 jin.y.kim@intel.com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캐나다 몬타리오	회장	한성택 (약대 58입) (416)293-6138 samhahn@activebioresearch.com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email.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박하일 (문리 59입) 604-266-7955 hailpark@telus.net
	차기회장	이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차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동문들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전문적 논설과 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부유케 하는 문학작품 (시·수필·기행문·단편소설 등)과 동문들의 동정(직업 변경, 이사, 활동 사항 등) 제보와 투고를 받습니다.
또한 동문 회보 편집자에게 보내는 글을 게재해 독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회보 편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가급적 한글로 타자하시어 e메일로 보내거나 필경을 한 원고는 우편으로 보내시고 팩스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보 1페이지에 적합한 원고 분량은 12포인트 싱글 스페이스, 레터 사이즈 3페이지 정도(한글 약 5천자, 1천 단어)입니다.

*동창회와 연락 및 투고를 하실 때는 본인의 출신 단과대학 및 입학년도, 그리고 거주 지역을 밝혀주셔야 동명이인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고 보내실 곳: 456 Frontage Rd., #3 Northfield IL 60093
Tel/Fax (847)441-0011. e-Mail SNUAAHQ@gmail.com

미주 동문의
웹 사이트 운영

미주 동창회 웹 사이트 관할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10대 임원회는 그간 웹 사이트 활용을 하지 못해 왔으며 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별도로 설치, 운영키로 했습니다.

제 9대 회장단 이전에 사용하던 웹 사이트 (<http://www.snua.net/>)와 뉴욕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동문 카페 (<http://cafe.daum.net/snua10>)는 동창회 제10대 회장단의 활용이 여의치 않아 웹 사이트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새 웹 사이트는 현재 건설중이며 동창회의 필요한 공지사항과 회보, 동문 서베이 등 기능적인 페이지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웹 사이트 건설 기간 동안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곧 개선될 것임으로 동문들의 양해와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새 웹 사이트 주소: <http://www.snuaa.org/>

제 19차 평의원 시카고 회의에 초청합니다.



날짜: June 11, 12, 13, 2010
장소: Lincolnshire Marriott Resort
 10 Marriott Drive, Lincolnshire, IL 60069
 Tel: (847) 634-0100

6월 11일 (금요일)
 3:00 - 5:00 pm Check in, 등록 및 접수
 6:00 - 10:00 pm 초빙 강사 강연 및 토론회

6월 12일 (토요일)
 9:00 - 5:00 pm 19차 평의원 회의
 6:30 - 7:30 pm Reception, Cocktail
 8:00 - 10:00 pm 평의원, 총장, 동창회장 시카고 동창회 환영 디너

6월 13일 (일요일)
 8:00 am - 12:00 pm Check out
 11:00am - 5:00 pm 19차 평의원 회의 환영 골프 대회
 6:00 pm - 10:00 pm 골프 대회 시상식 및 디너

미주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송순영)는 연중사업계획의 하나로 전통문이 참여할수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환상의 지중해 크루즈 9박10일

10월8일출발

인사이드룸
\$1730
항공료 별도



모든 옵션포함, 전입정 한국인 전문안내 동행

각방문도시마다 동문만을 위한 전용투어 버스운행



여행일정 :

10/08 미국-바르셀로나(항공편)
 10/09 바르셀로나 시내관광
 10/10 오전 시내관광후 배에 승선
 10/11 몬테카를로
 10/12 플로렌스/피사
 10/13 로마/바티칸
 10/14 나폴리
 10/15 At sea(선내)
 10/16 팔마섬
 10/17 바르셀로나 - 미국

팩키지에는 항공료를 제외한 다음모든사항이 포함됨

1. Barcelona 2 days private tour
2. Monaco/Nice private tour
3. Florence/Pisa private tour
4. Rome and Vatican private tour
5. Naples/Pompeii private tour
6. Plama private tour

All tips for guide/driver Included

Room Type 에 따른 계약된 그룹요금

1. Balcony room (\$2290 + Air)
2. Oceanview room(\$1890 + Air)
3. Partial Oceanview(\$1820 + Air)
4. Inside room(9층) (\$1750 + Air)
5. Inside room(8층) (\$1730 + Air)

예약마감 : 5월31일

예약및 문의 800-222-3586
 sharptour@hotmail.com

샤프여행사

Sharp Travel(본점) www.sharptours.com
 3520 Milwaukee Ave. Suite 1, Northbrook, IL 60062
 TEL. 847.759.8813 FAX. 847.759.8825 Toll Free. 1.800.222.3586

Sharp Travel(지점)
 1226 N Roselle Rd. Unit B, Schaumburg, IL 60195
 TEL. 847.285.3219 FAX. 847.285.3493 Toll Free. 1.888.To.Sharp



선배님! 함께 해주세요!

VISION2025 모금 캠페인, 세계 최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선배님, 우리 후배들에겐 꿈이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다져놓으신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
비전2025 모금 캠페인은,
세계 정상을 향한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모교와 나라에 대한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세요!

3천억 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한 비전2025 캠페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벌써 80% 가까운 모금을 달성했습니다.
멋진 마무리를 동문 선배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이
바로 서울대의 경쟁력입니다.

• 동문 집중 참여 기간 : 2009년 8월~2010년 7월

서울대학교 모금캠페인 VISION2025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세계를 향한 힘찬 도약 Global Excellence	세계 초일류 인재 육성 대학의 국제화 글로벌 학문 육성
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 Social Impact	사회 기여의 확대 사회 정책 기능 강화
미래를 위한 변화와 준비 Foundation for Transformation	대학 혁신 지원 학문 인프라 강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재원은 서울대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사용됩니다.

발전기금 참여 계좌: Woori Bank Seoul National Univ. Br.
Address: San 4-2, Naksungdae-dong, Gwanak-gu,
Seoul 151-919, Korea
Account No.: 1081-000-418404
Swift Code: HVBKCRSE
문의: 82-2-880-5026, 871-8146
gift@snu.or.kr
<http://www.snu.or.kr>

